

BUILDING YOUR TOMORROW TODAY

2013 Doosan Infracore Integrated Report



서울특별시 중구 정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www.doosaninfracore.com



P R O U D
P E O P L E
P R O U D
D O O S A N

evotion to

Doosan Infracore



ABOUT THIS REPORT

보고 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사항을 주로 담고 있으며, 전략과 이사회 구성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발간일 기준의 최신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CSR 성과표'를 작성해 3개 년간의 주요 성과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범위는 한국 내 사업장(서울, 인천, 창원, 군산, 안산)을 중심으로 하였고, 글로벌 사업장 내용도 일부 포함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매년 통합보고서의 보고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원칙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과 AA1000APS(2008)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됐으며,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IR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재무 관련 내용은 국제 재무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 국제 표준인 AA1000SES를 활용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신뢰도 검증

보고 과정의 적합성과 충실성, 보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 검증기관인 EY한영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103페이지의 '제 3자 검증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추가 정보 및 피드백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www.doosaninfracor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기획조정실 CSR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25F (우편번호 100-730)
E-mail : infracore.csr@doosan.com



2013 통합보고서는 두산 슬로건인 'Building your tomorrow today'라는 콘셉트 아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전략과 활동들을 담았습니다.

표지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Disclaimer)

본 보고서에서 예측한 활동과 사건, 현상은 당해 보고서 작성 시점의 계획과 재무 성과에 대한 예측 정보로서,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주변환경과 내부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획과 가정을 세웠으나,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간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 기타 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CORPORATE OVERVIEW

2013 DOOSAN INFRACORE INTEGRATED REPORT

01 DOOSAN GROUP

03 THE DOOSAN WAY

05 COMPANY PROFILE

CORPORATE OVERVIEW

2013 DOOSAN INFRACORE INTEGRATED REPORT

01 DOOSAN GROUP

03 THE DOOSAN WAY

05 COMPANY PROFILE

가장 오랜 역사에 기반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

118년 전에 시작된 두산의 원대한 꿈

두산은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기업이자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온 저력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의 역사는 1896년 배오개(서울 종로 4가)에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상점인 '박승직 상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맥주 사업을 주축으로 한 주류, 음료 등의 소비재 중심 사업구조를 이뤄냈습니다. 이어 주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 수평 계열화에 성공해 1970~80년대 한국 시장에서 80%라는 놀라운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재 사업 분야에서 부동의 1위라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인프라지원사업으로 사업구조 전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1990년대 중반, 한국 시장 정체와 경쟁 과열로 인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최대 주력 사업이었던 오비맥주 매각과 계열사 통합 등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대를 앞선 생각과 대비로 이후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두산은 2000년대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발전, 담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공업과 건설, 건설기계 사업 등의 성공적인 M&A로 소비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산업 기반시설, 즉 건설기계 장비, 에너지, 생산 설비를 포함하는 방대한 인프라지원사업(ISB : Infrastructure Support Business)으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확고한 위상과 역량

두산은 이후 글로벌 무대로의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했습니다. 중공업 사업의 핵심 역량인 석탄 화력 보일러 기술을 보유한 Babcock(영국, 2006년)을 인수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당시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해외 인수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Bobcat(미국, 2007년) 인수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의 라인업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두산은 해수 담수화 및 발전 설비 등의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19개에 달하는 두산 제품이 세계 일류 제품으로 등재되는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적에 상관 없이 인재를 등용해 외국인 임직원 비율이 전체 임직원의 50%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성공 원동력, 사람에 대한 믿음

두산의 성공 역사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사업의 기반'이라는 창업주의 철학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두산의 이러한 믿음은 두산의 2G 전략(Growth of People, Growth of Business)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산을 이끌어온 힘이자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전략인 2G 전략은 '사람의 성장이 곧 회사 성장의 토대가 되고, 회사의 성장은 다시 사람의 성장을 이끈다'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두산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적인 포트폴리오 전환 등 중요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을 향한 도전

두산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을 지향합니다. '자랑스러운 두산'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두산을 통해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두산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 주주, 더 나아가 전 지역사회를 포괄합니다. 두산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산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두산이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두산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두산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두(斗) 산(山)

두산(斗山)은 '한 말 한 말 쌓아 큰 산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야만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 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두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12 FINANCIAL HIGHLIGHTS

(단위: 억 원)

자산 총계

396,259

매출액

258,233

자본 총계

122,998

영업이익

6,576

* 본 보고서가 2013년 그룹 매뉴얼 브로셔보다 앞서 발간되어 2012년 그룹 재무제표로 표기합니다.

계열사

ISB(Infrastructure Support Business)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중공업
- 두산건설
- 두산엔진
- 두산 DST

(주)두산

- (주)두산 전자
- (주)두산산업차량
- (주)두산 모트를
- (주)두산 글로벌
- (주)두산 정보통신

CSB(Consumer & Service Business)

- 두산캐피탈
- 오리콤
- 네오플렉스
- 두산생물자원
- 두산타워
- 두산베어스
- 두산큐백스
- 두산동아(주)
- SRS코리아
- 두산매거진

부속기관

- 두산연강재단
- 두산아트센터
- DLI
- 중앙대학교
- 중앙대학교병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두산만의 믿음과 철학,
그것이 바로 두산 Way입니다.



Doosan Credo

두산 Credo

지난 100년을 이끌어온 두산의 경영 철학과 사업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명문화한 것이 바로 두산 Credo입니다. 두산 Credo는 아홉 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두산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준거입니다. 이를 통해 두산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합니다. 두산 Credo는 두산의 목표(Aspiration)와 핵심 가치(Core Values)로 이뤄집니다.

Aspiration

목표

두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입니다.

‘자랑스러운 두산’이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두산을 통해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임직원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두산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고, 고객에게는 두산이 제공하는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자랑스러운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며, 주주에게는 정당하고 높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자랑스러운 두산의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Core Values

핵심 가치

두산인은 두산 Credo의 아홉 가지 핵심 가치를 매일 실천합니다.

두산인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두산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두산 Credo의 아홉 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 구성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핵심 가치에 들어있습니다. 두산의 아홉 가지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재	인재양성	정직과 투명성
인화	고객	기술과 혁신
이익	사회적 책임	안전과 환경



두산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합니다

두산인은 사람을 성과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두산인은 먼저 개개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때로는 단기 성과를 희생할지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양성을 최우선시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화를 실천합니다

두산인은 자신의 성과와 팀의 성과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며, 조직 공동의 하나된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합심하는 팀워크를 중시하고 실천합니다. 보다 강력한 진정한 의미의 팀워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당함과 따뜻함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당함과 따뜻함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팀워크, 이것이 두산이 추구하는 ‘인화’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를 가집니다

두산인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1등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성취하였을 때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높이고 개선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개인의 호기심, 열정 등과 함께 눈높이를 다시 올리고자 하는 자발적 욕구로 이어집니다. 두산인은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눈높이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상하좌우 열린 소통을 합니다

두산인은 상하좌우 열린 소통을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과 합리적 근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두산인의 의무입니다. 두산인은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믿을 만한 사람이며, 믿음이 있어야 열린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근성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냅니다

두산인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시도하여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두산인의 ‘근성’이 자신이 가진 능력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정당하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내외부 옵션과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현명한 근성’을 의미합니다. 두산인은 자신의 역량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필요하다면 남의 머리와 아이디어도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의 해결에 집중합니다

두산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찾아내면, 모든 고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이를 확실하게 먼저 해결해 냅니다.

Company Profile

회사명	두산인프라코어
설립연도	1937년
CEO	김용성
주요 사업 내용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생산 및 판매
임직원 수	14,309명
신용등급	A(회사체)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탁월한 품질의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기계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향하는 Global Top 3 기계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Way를 바탕으로 다국적 임직원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기업문화 구축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탁월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근본적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 FINANCIAL HIGHLIGHTS

(단위: 백만 원 / 연결 기준)

총자산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11,481,494	3,549,020	7,736,830	36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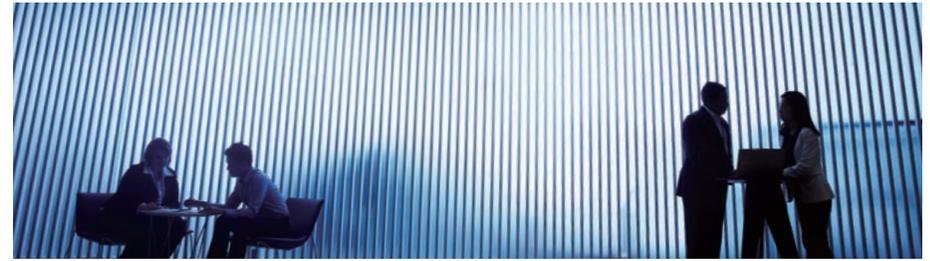
VISION

2020 Global Top 3 Machinery

2020년까지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분야에서 각각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하여 글로벌 일류 기계회사로 성장하겠다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장기 목표입니다.

중기 재무목표

2018년 매출 13조 원 중장기 전략의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중기 재무 목표입니다.



BUSINESS OVERVIEW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등 기계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 스티어 로더, 중장비 어태치먼트, 굴절식 덤프트럭 등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군과 함께 밥캣(Bobcat), 기스(Geith), 몽따베르(Montabert) 등 세계적인 건설기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 복합가공기 등 다양한 공작기계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품질혁신을 통해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엔진 사업부문은 디젤엔진과 가스엔진 등 각종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는 제품 풀 라인업을 갖추고 세계적인 엔진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DOOSAN

두산(Doosan)은 굴삭기, 휠로더, 굴절식 덤프트럭, 이동식 발전기 등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엔진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인프라지원사업의 종합 브랜드입니다.

Bobcat

밥캣(Bobcat)은 건설, 산업, 조경, 농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소형 중장비의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설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eith

기스(Geith)는 지난 50여 년 동안 뛰어난 품질과 서비스, 신뢰성 높은 제품으로 많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굴삭기용 대형 어태치먼트 제품 브랜드입니다.

MONTABERT

몽따베르(Montabert)는 유압식 건물 해체 톨 브랜드로서, 건설, 토목, 광산, 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THE 2nd INTEGRATED REPORT



보고서 발간 목적

본 보고서는 애뉴얼리포트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전시킨 두 번째 통합 보고서입니다. 통합보고서 발간은 애뉴얼리포트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통합하여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고 사회책임경영(CSR)을 기업 전반에 내재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경위

두산인프라코어는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발간해온 환경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애뉴얼리포트를 통합해 2013년부터 통합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보다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전략, 영업, IR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관 부서가 통합보고서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40여 개의 실무 팀에서 그 동안의 경영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Reporting method



PRINTED MATERIAL

본 보고서는 국문, 영문, 중문으로 발간하여 글로벌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INTERACTIVE PDF

본 보고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기사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도 발간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www.doosaninfracore.com)에서 다운로드와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Icons used on this report



CROSS-REFERENCE

보고서 내 연관 정보 혹은 세부 보고내용이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 NEWS

보고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해 연관 기사가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Interactive PDF)

Contact us



두산인프라코어 기획조정실 CSR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25F
(우편번호 100-730)

E-mail: infracore.csr@doosan.com

▶ 각 페이지를 넘기면 두산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에 관한 소식을 많은 콘텐츠가 접목되어 있습니다.

Why is Doosan Infracore sustainable?

Doosan Infracore, a global leader of the urbanization and civilization of the world, manufactures construction equipment, machine tools, and engines, and constantly seeks new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create a better future.

인프라 지원사업은 각종 산업에 소요되는 핵심부품을 만들고 다양한 기계에 동력을 제공하며 인프라 개발을 지원해 인류와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분야의 사업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울러 지구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성과와 함께 환경적 가치, 사회적 책임의 조화로운 실현을 추구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과 제품, 품질, 원가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근원적 경쟁력. 이것이 바로 두산인프라코어 지속가능경영의 원천입니다.



CEO Message

두산인프라코어는 'Building your tomorrow today'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원적 경쟁력 강화란 품질, 성능, 원가 면에서 대폭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기술과 제품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전문역량을 갖춘 두산인을 양성하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13년은 이러한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였던 해였습니다. 경영환경은 전년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체간 경쟁은 한층 심화되고 주력시장인 건설기계 시장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모든 임직원이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매진한 결과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북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부진이 지속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7조 7,3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밥캣의 호조세와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된 3,69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4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재무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품질과 기술, 생산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품질혁신 TFT를 운영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통합 디자인센터를 설립해 기술품질에서 감성품질까지 제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소형 디젤엔진을 밥캣 소형장비에 장착해 출시함으로써 북미지역에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였고, 대형 공작기계 공장을 준공해 기술 집약형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2014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되겠으나, 중국과 신흥국가들은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향후 본격적인 시장 회복기에 대비하여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기존 사업에서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익 창출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기술, 구매, 품질 등 모든 밸류 체인에 걸쳐 재료비와 품질보증 비용을 절감하고, 미진입 시장 참여와 고수익 기종의 매출 확대를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난해에 이어 재무혁신 활동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품질혁신과 함께 시장경쟁 우위의 기술과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품질혁신 TFT를 비롯한 품질혁신 활동을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해 고객이 인지하는 품질 관점으로 지표를 강화하고, 서비스와 협력사까지 품질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배기규제에 대응하는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군 개발에 착수하는 동시에 연비와 성능을 차별화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중국과 주요 신흥시장에서 우수 딜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딜러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도 추진해 채널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딜러 서비스 교육 강화, 부품 공급률 향상으로 서비스의 대응 속도와 품질을 대폭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미 기획조정실 내 미래전략팀을 가동하여 중장기 성장 테마를 발굴하고 있으며, IT를 기계산업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와 더불어 광산업 기자재, 3D 프린팅 등 연관 사업으로의 확장 기회를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두산 Way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도 두산 Way는 두산인 양성, 선진화·과학화, 근원적 경쟁력의 '두산 Way 변화 모델'을 기반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직무역량체계를 수립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해 직무 전문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두산인을 양성하고, 품질과 기술 및 서비스의 강화, 신모델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근원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전사의 9대 핵심 프로세스 개선 활동과 더불어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CORE Office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경 받는 기업이 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미래세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친환경 사업장 운영과 친환경 제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지구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떠한 환경 변화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역량을 갖춰 모든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글로벌 Top 3 기계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기업, 두산인프라코어의 새로운 도약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총괄 CEO 김용성



Building your tomorrow today

Contents

AT A GLANCE

- 03 2013 Highlights
- 04 Doosan Infracore Business Model
- 06 Financial Performance Review 2013
- 10 Non-financial Performance Review 2013
- 14 Global Market Insight

OUR STRATEGIC PERFORMANCE

- 16 밥캣, 새로운 심장 소형 디젤엔진 G2를 탑재하다
- 24 기술 집약형 제품으로 또 하나의 도약을 시작하다
- 28 고객만족을 향한 새로운 도전
- 32 Creating Business Value
- 44 두산 Way 변화 모델로 사람과 일의 변화를 시작하다
- 48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이웃



16p.

밥캣, 새로운 심장
소형 디젤엔진 G2를 탑재하다

24p.

기술 집약형 제품으로
또 하나의 도약을 시작하다

28p.

고객만족을 향한
새로운 도전

44p.

두산 Way 변화 모델로
사람과 일의 변화를 시작하다

48p.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이웃

OUR CSR PERFORMANCE

-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 72 임직원 가치 증진
-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APPENDIX

- 94 재무제표
- 98 외부 감사인 감사보고서
- 99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 100 CSR 성과표
- 103 제 3자 검증보고서
- 105 글로벌 네트워크

Building your tomorrow today

1958

1958년 설립 이후 세계 소형 건설장비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온 바캬. 지금도 북미와 유럽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최고의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65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3명의 마스터와 65명의 FC 코치. 2013년 R&D 부문에 시범 도입한 전문가 인증제도를 전사로 확산해 최고의 직무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315

고객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315개 기종으로 구성된 공작기계 포트폴리오. 공작기계 사업부문이 완벽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적기 대응하며 고객감동을 선사합니다.



37%

자체개발에 성공하여 전 세계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소형 디젤엔진(G2). 2018년까지 37%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5,322

이웃을 보살피고 사회를 지원하는 5,322명의 아름다운 나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 수)

2018

2018년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기술품질과 감성품질 개선 활동. 기술과 디자인 혁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감탄하는 일등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oosan Infracore Business Model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각종 자원들이 어떻게 투입되고, 투입된 자원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지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의 단기·중기·장기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투입물과 경영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한 산출물과 결과물로 이루어진 고유의 시스템입니다. 특히 아래 비즈니스 프로세스 항목에서는 사업의 흐름에 따라 투입된 다양한 자원과 자본이 두산인프라코어만의 차별화된 성과물로 창출되는 과정을 중점 정리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통합하여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보고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Vision

글로벌 Top 3 기계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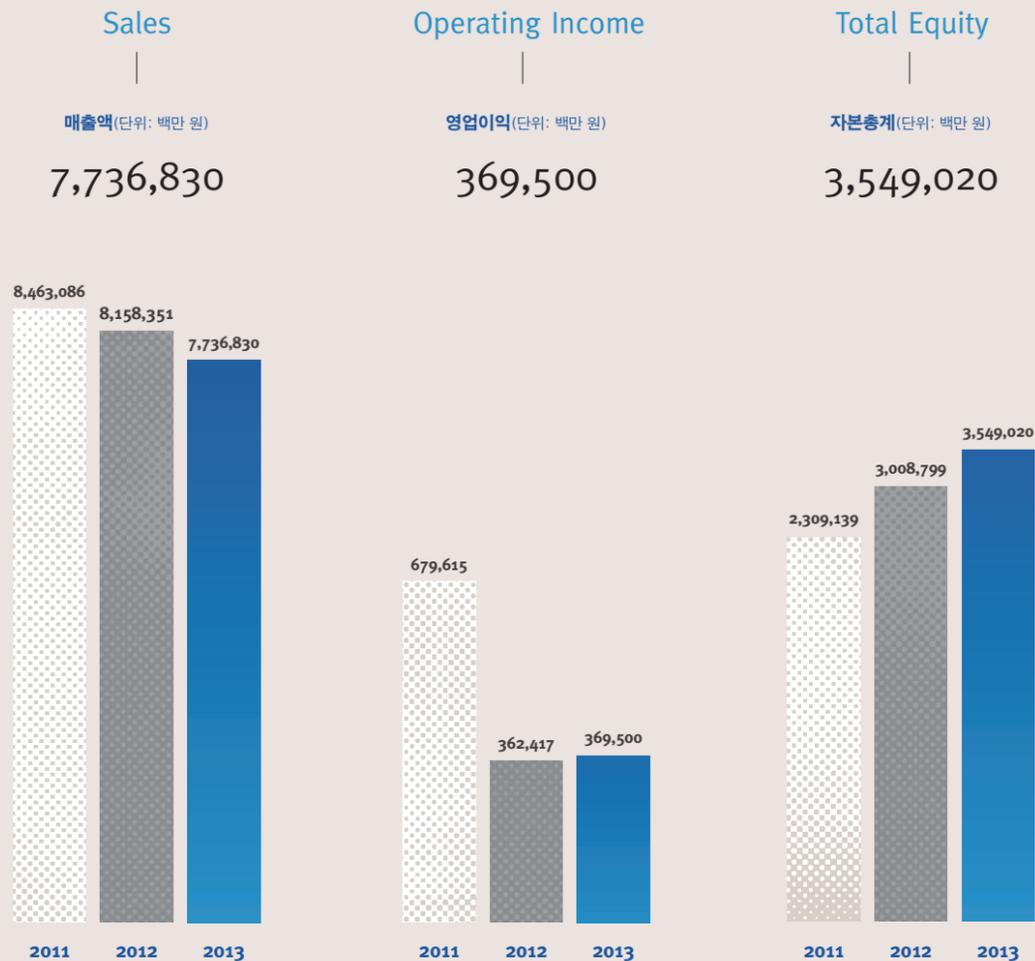
2018년 매출 13조 원

Financial Goal

Financial Performance Review 2013

1. 영업환경

2013년 세계 경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3.0%)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지역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신흥국은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추진과 일부 브릭스(BRICs: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국가의 성장을 둔화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및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수출에 있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면서 GDP 성장률이 전년의 2.0%에서 2.8%로 상승하였습니다.



2.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K-IFRS 연결기준)

영업실적

2013년 누적 매출액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한 7조 7,36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였고, 엔진 사업부문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및 차량용 엔진 부문의 선전으로 매출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15.9% 증대되었습니다.

단위: 백만 원

	2013	2012	2011
매출액	7,736,830	8,158,351	8,463,086
매출원가	6,089,338	6,478,130	6,615,691
매출총이익	1,647,492	1,680,221	1,847,394
판매비와 관리비	1,277,992	1,317,804	1,167,779
영업이익	369,500	362,417	679,615
기타영업외수익	28,786	35,902	84,441
기타영업외비용	69,557	82,008	55,60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56,964)	(22,160)	285,253
법인세수익(비용)	(43,986)	415,503	(78,314)
당기순이익	(100,950)	393,343	310,810

재무상태

2013년 말 자산총계는 재고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35억 원 감소한 11조 4,81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예탁증서(GDR: Global Depository Receipts) 발행,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로 인해 부채총계는 전년 대비 6,037억 원 감소한 7조 9,32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5,402억 원 증가한 3조 5,490억 원입니다. 순차입금 규모는 전년 대비 4,479억 원이 감소한 4조 2,263억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Total Assets 자산총계	Total Liabilities 부채총계	Total Equity 자본총계
11,481,494	7,932,473	3,549,020

단위: 백만 원

	2013	2012	2011
유동자산	3,706,206	3,861,995	4,232,530
비유동자산	7,775,288	7,682,996	7,471,145
자산총계	11,481,494	11,544,990	11,703,675
유동부채	2,753,668	3,539,078	4,473,166
비유동부채	5,178,805	4,997,113	4,921,370
부채총계	7,932,473	8,536,191	9,394,536
자본금	1,037,277	843,290	842,779
자본잉여금	237,381	14,255	8,288
이익잉여금	1,313,453	1,299,786	963,023
자본총계	3,549,020	3,008,799	2,309,139

3. 부문별 실적

건설기계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2013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한국 시장에서 신기종 도입과 영업체질 개선, 제품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업계 1위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비중이 높은 북미지역에서는 소형 건설장비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스킵 스티어 로더와 콤팩트 트랙 로더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채널 커버리지를 확대하여 대형 중장비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전사 매출 및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장 침체 지속과 판매채널의 구조조정 추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다소 하락한 반면, 신흥시장에서는 굴삭기와 휠로더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지속 확대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은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마케팅을 강화하여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공작기계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2013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지역별 판촉 활동 강화, 동유럽 및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향후 회복세가 전망되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시장 및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지역 성장전략을 수립해 미래 매출 성장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엔진

엔진 사업부문은 2013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대형 고객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한 단기 매출 확대전략을 펼쳐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엔진의 유입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배기규제에 대응한 신기종 개발, 엔진 라인업 확장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후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작업환경 및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struction Equipment

Machine Tools

Engines

건설기계 매출액(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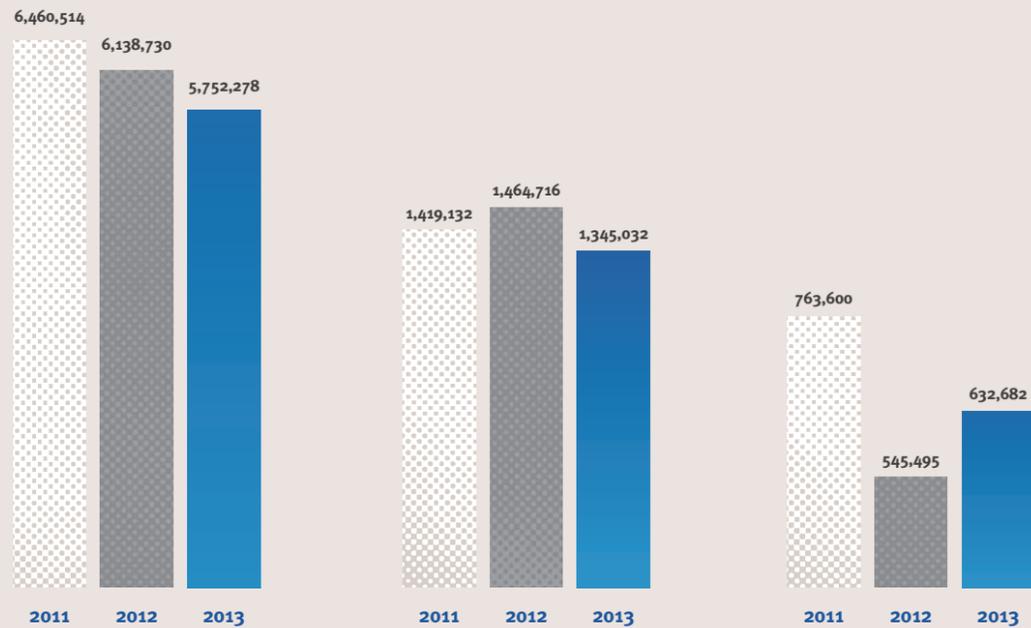
5,752,278

공작기계 매출액(단위: 백만 원)

1,345,032

엔진 매출액(단위: 백만 원)

632,682



단위: 백만 원

매출액	2013	2012	2011
건설기계	5,752,278	6,138,730	6,460,514
공작기계	1,345,032	1,464,716	1,419,132
엔진	632,682	545,495	763,600
공통	6,838	9,410	(180,160)
합계	7,736,830	8,158,351	8,463,086

단위: 백만 원

영업이익	2013	2012	2011
건설기계	231,287	230,611	493,369
공작기계	145,895	145,116	200,220
엔진	(7,465)	(26,080)	49,520
공통	(217)	12,770	(65,320)
합계	369,500	362,417	679,615

4. 현금흐름

2013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연결 기준 현금흐름은 4,81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는 5,953억 원의 순현금 유출이 있었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출은 차입금 및 사채 등의 상환으로 인해 80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변동 효과를 감안한 2013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약 2,878억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2013	2012	201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1,935	(450,365)	117,18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5,347)	(527,064)	(290,22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201)	811,065	328,609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62,494	624,032	476,739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87,838	462,494	624,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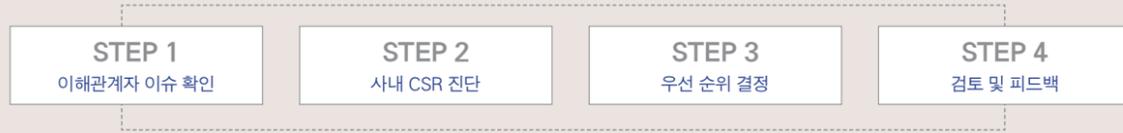
5. Tax Strategy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세금과 관련한 정책과 활동을 수행합니다. 본 정책과 활동은 사업의 본질인 브랜드 가치와 영업 경쟁력,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회사의 ETR(Effective Tax Rate, 유효세율)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적법한 조세 활동을 수행하는 Tax Management와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에 표시되는 법인세 관련 사항에 대해 정확한 계산과 공시를 수행하는 Tax Accounting을 통해 세금정책을 실천합니다. Tax Management를 통해 거래구조를 검토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Tax Planning 기능과 세금정책을 회사의 해외 사업전략과 독립 기업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Transfer Pricing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Tax Accounting을 통해 법인세 관련 계정을 DFAS(Doos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두산 회계기준서)와 지역별 회계원칙(Local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처리하며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사항에 반영하여 공시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Tax Compliance와 Tax Audit Defense를 통해 세법 및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일체의 신고와 보고, 납부 및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세무 조사 및 과세 당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규모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국가 및 지역별 세금원칙을 준수합니다.

Non-financial Performance Review 2013

2013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Non-financial Performance Review를 마련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CSR 활동 영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CSR 활동을 추진합니다. 각 활동 영역별로 주요 관리이슈(Key Issue)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 중 중대성 평가 결과 우선 순위와 잠재적 영향도가 높다고 분석된 중대이슈에 대해서는 연도별 실행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KPI를 도출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이해관계자 이슈 확인**
 최근의 CSR 트렌드와 이슈 분석을 통해 이슈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우선, 미디어 분석과 CSR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지표 분석 등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최신의 CSR 이슈와 사회적 관심도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는 참여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는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CSR Working Group과 협업 조직간 논의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 이슈가 결정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2단계** — **사내 CSR 진단**
 두산인프라코어는 고유의 CSR 진단모델을 개발해 자체 진단함으로써 주요 외부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회사의 CSR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 프레임은 지배구조, 고객 가치, 임직원, EHS, 공정운영, 지역사회 개발과 참여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SR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을 거쳐 연도별 개선 목표와 중장기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2013년에 CSR 진단모델을 개선하여 한국과 중국 사업장에 적용하였고, 2014년에는 현지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한 진단모델을 북미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3단계** — **우선 순위 결정**
 CSR 진단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심으로 도출된 항목을 내부 CSR 수준 정도와 이해관계자 관점의 관심도로 분석하여 중대이슈를 도출합니다. 그 중 이해관계자 관심도가 높으나 현재 대응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의 여지가 큰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며,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은 약하나 선진 경쟁사 또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중시되는 이슈 중 자체 대응 수준이 미비하다고 분석된 이슈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중대이슈로는 윤리경영 소통과 확산,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 혁신, 인권 존중과 다양성 보호,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출된 중대이슈는 기존의 현업 활동과 연계하여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실행됩니다.
- 4단계** — **검토 및 피드백**
 CSR Working Group에서 선정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이 논의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년간 CSR 전략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주요 활동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검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말미의 제 3자 검증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리이슈 중 'M' 표시가 된 항목이 중대이슈이며 괄호 안에는 각 중대이슈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표기하였습니다. 주요 관리이슈의 항목별 목표와 성과, 중대이슈의 KPI 관리현황 등은 활동 영역별 DMA(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경영접근방식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n-financial Performance Review의 2013년 주요 성과는 KPI와 관계 없이 각 활동 영역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M : Material Issue

주요 이해관계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주주/투자자, 고객/딜러, 임직원, 협력사, 정부/지자체, 언론	주주/투자자, 임직원, 정부/지자체, 언론
CSR 활동영역	공정운영	고객 가치	HR
영역별 달성방향	투명-윤리경영 63p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66p	임직원 가치 증진 72p
주요 관리이슈 (중대이슈 관리 K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소통과 확산 M (윤리경영 교육 이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 혁신 M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고객 커뮤니케이션 M (고객불만(접수) 건 수 저감률) 공정마케팅 M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존중과 다양성 보호 M (여성인력 비율) 고용 및 고용관계 M (고령자 수) 인재경영 실천 인재양성 강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2013 주요 성과	CSR위원회 발족 위원장: 총괄CEO 부산그룹 최초 UNGC 가입	R&D 투자 확대 2,041억 원 투자금 2,041억 원 (매출액 대비 5.3%) 1조 1,990억 원 2013~2016년까지 1조 1,990억 원 투자 계획	여성인원 비율 확대 8.47% 여성인력 비율 8.47% 2.12 ↑ 출산 및 육아휴직 인원 2.12배 증가
	장기투자자 유치 9.90% 장기투자 지분율 9.90% (GIC 7.76%, NPS 2.14%)	고객불만(접수) 건 수 저감 16% 보증기간 내 고객불만(접수) 건 수 16% 개선	자기주도형 학습체계 구축 11.5 1인당 러닝 크레딧 11.5학점
	윤리경영 강화 내부 신고센터 개설 윤리강령 개정 및 신고제도 확대	초기품질 고객불만(접수) 건 수 31% 초기품질 고객불만(접수) 건 수 31% 개선	고용관계 개선 80명 80명 정규직 전환
		공정불량률 개선 61% 61% 개선(인천공장)	60세 60세로 정년 연장

주요 이해관계자	주주/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지자체, 언론	임직원, 협력사, 정부/지자체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지자체, 언론
CSR 활동영역	EHS	공정운영	지역사회
영역별 달성방향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78p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4p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성장 지원 88p
주요 관리이슈 (중대이슈 관리 K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EHS 경영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M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 오염물질 및 지역사회 환경 영향성 관리 M (환경기준 미준수 건 수) 임직원 안전보건 리스크 예방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 전략 사내 사회공헌 문화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M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2013 주요 성과	글로벌 EHS 평가 실시 4개 / 6개 한국 4개, 중국 및 유럽 6개 사업장 EHS 평가	금융 지원 1,030억 원 동반성장 특별펀드 1,030억 원 조성	참여 임직원 확대 5,322명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5,322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체계 구축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제품개발 지원 55건 부품 국산화 개발 8건, 신기종 공동개발 40건, OEM 및 모듈 지원 7건	자발적 사회공헌 24.3% ↑ 끝낸 모금액 2억 2,657만 원 (전년 대비 24.3% 증가)
	온실가스 배출관리 162,080 tCO ₂ eq 온실가스 배출량 162,080 tCO ₂ eq	CSR 역량 강화 협력사 근로자 인권 보호 준수 협약식	지속적 사회공헌 0.35%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투자금액 0.35%
	92.7% 배출허용량 대비 92.7% 배출	10개 10개 협력사 CP 선언	

Global Market Insight

North America & Oceania

매출액-백만 원 **2,548,427** 인력-명 **2,838**

북미지역은 지난해 미국 건설경기의 회복세로 건설장비 교체 수요가 증가하며 소형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강화된 Tier 4 Final 배기규제가 시행되어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배기규제에 대응하는 대형 및 소형 건설장비 제품을 적기에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주력 시장인 북미지역의 제조업 회복세에 맞춰 마케팅을 강화하고, 엔진 사업부문도 소형 엔진과 발전기용 엔진 등 친환경 엔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urope, the Middle East & Africa

매출액-백만 원 **1,311,108** 인력-명 **2,496**

유럽지역은 재정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건설기계 시장은 새로 시행되는 배기규제의 영향으로 조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형 건설장비의 시장 리더십과 대형 중장비 시장 공략을 강화해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점진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작기계 사업부문에서는 기술 집약형 제품의 판매 확대에 주력할 것입니다. 신규 채널 확보로 매출이 확대됐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기계 시장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China

매출액-백만 원 **1,030,990** 인력-명 **2,947**

중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2014년에도 전년에 이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지표 호전과 인프라 투자 증가로 하반기부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현지 특성을 고려한 영업전략을 펼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맞춘 특화된 굴삭기와 휠로더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고객 만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연비·고성능의 소형 건설장비와 내구성을 향상시킨 대형 광산 특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에서는 고객 맞춤형 제품 출시와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제품 홍보에 매진해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Asia Pacific & Emerging Market

매출액-백만 원 **2,846,305** 인력-명 **6,028**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중남미, CIS 등 신흥시장은 성장세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완만한 경기 회복과 함께 시장 성장이 예상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 영업채널 강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브라질 굴삭기 공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중남미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전 세계 23개 생산시설과 51개 판매법인과 지사, 11개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140여 개국 1,500개 이상의 딜러로 구성된 대규모 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한 14,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효율적인 글로벌 경영을 위해 전 세계를 북미·오세아니아, 유럽·중동·아프리카, 중국, 아시아태평양·신흥시장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시장과 고객 상황에 맞는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엔진 사업부문 모두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선진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는 소형 건설장비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형 중장비 시장 공략을 확대하였고, 공작기계 마케팅도 강화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 영업채널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CIS 등 신흥시장에서는 맞춤형 제품 출시, 영업채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성장세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통찰을 강화하여 어떠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SYNERGY LEADS TO FUTURE GROWTH

밥캣, 새로운 심장 소형 디젤엔진 G2를 탑재하다

소형 건설장비 최강의 브랜드인 밥캣과 첨단 고효율·친환경 소형 디젤엔진 G2가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2013년 10월 미국 노스다코타주 그위너 공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독자 개발한 소형 디젤엔진 G2가 탑재된 밥캣 500시리즈 스키드 스티어 로더가 첫 출하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이 협력하여 자체 개발한 Non-DPF 엔진을 장착한, Tier 4 Final 시장을 이끌 가장 강력한 소형 건설장비가 탄생한 것입니다.



RELATED NEWS



BOBCAT - A FIRM LEADER OF COMPACT EQUIPMENT

소형 건설장비 산업의
글로벌 리더, 밥캣

밥캣은 2013년에 개최된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인 'BAUMA 2013'에서 스키드 스티어 로더 S510, S550, S590과 컴팩트 트랙 로더 T590, 그리고 대형 기종으로 출시된 600, 700, 800 모델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RELATED NEWS

소형 디젤엔진 G2를 장착한 밥캣 500시리즈 출시

밥캣은 2013년 소형 디젤엔진 G2를 장착한 500시리즈를 출시하며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했습니다. G2를 탑재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와 함께 Tier 4 Final 배기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엔진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품을 자가화하여 생산 안정성이 더욱 높아졌고, 고객 A/S와 성능개선 활동에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500시리즈는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군인 스키드 스티어 로더(SSL)와 컴팩트 트랙 로더(CT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가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매연 저감 필터) 장치 없이도 최신 환경규제인 Tier 4 Final 배기규제를 충족할 수 있어 고객의 작업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환경규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밥캣은 500시리즈 출시를 통해 북미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고의 소형 건설장비 브랜드

밥캣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소형 건설장비 분야 세계 최강의 브랜드입니다. 1958년 농업용 장비를 계량한 최초의 스키드 스티어 로더를 개발한 데 이어, 1962년 밥캣(Bobcat) 브랜드를 론칭하였고 1970년부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밥캣은 이후 스키드 스티어 로더 외에 미니 굴삭기(MEX), 유틸리티 차량, 미니 트랙 로더 시장에 진출하여 각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고수해 왔습니다. 밥캣의 제품군 중 스키드 스티어 로더, All-Wheel 스티어 로더, 미니 트랙 로더, 컴팩트 트랙 로더, 툴킷은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미니 굴삭기는 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하며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의 지속적인 실적 호조

2007년 두산 가족이 된 밥캣은 2011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실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미국 건설경기 회복세로 건설 장비 교체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경비 절감, 투자 효율화를 통한 운영효율 제고, 신제품 M시리즈 출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매출과 수익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작업 환경과 성능을 대폭 개선한 M시리즈에 대한 고객과 딜러들의 호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시리즈의 선전으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 고수익 제품인 컴팩트 트랙 로더와 미니 굴삭기의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14% 늘어났습니다. 북미 시장이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밥캣의 실적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밥캣의 실적 호조와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향후 북미지역의 대형 중장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렌탈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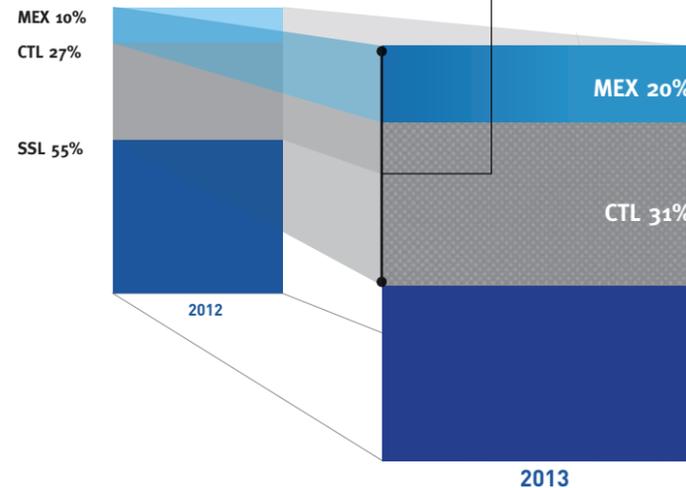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밥캣의 제품군 중 스키드 스티어 로더와 All-Wheel 스티어 로더, 미니 트랙 로더, 컴팩트 트랙 로더, 툴킷은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수십년 간 유지하며 글로벌 소형 건설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No. 1
in the global
market share

제품 MIX

고수익 제품인 미니 굴삭기(MEX)와 컴팩트 트랙 로더(CTL)의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14% 확대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
경영실적 및 전망
32p



비즈마크(Bismarck)
어태치먼트 생산, 로더 조립, 지원업무, 연구개발 지원센터

그위너(Gwinner)
강철 가공, 소형 건설장비 생산, 구조물 생산



와페턴(Wahpeton)
로더와 미니 굴삭기, 어태치먼트 장착용 실린더 및 밸브 생산

경쟁력 있는 글로벌 생산 시스템

밥캣은 소재 가공부터 부품,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인정 받는 뛰어난 경쟁력

밥캣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고객의 신뢰를 받아 온 것은 기술과 생산, 채널, 서비스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캣은 고유의 신제품 개발시스템(NPD: New Product Development)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관련 특허 수만 2천 건이 넘는 만큼 막강한 R&D 역량과 핵심부품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비즈마크 사업장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시험용 트랙과 야외 테스트센터 등을 갖춘 최첨단 연구개발지원센터(Acceleration Center)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밥캣은 강철 가공부터 부품 제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자체 생산시설을 갖춰 제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가격 경쟁력, 품질에 대한 제어 등에 있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표준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북미와 유럽 생산공장 어디든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밥캣의 영업망은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북미에만 600여 개의 딜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

였고,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 약 1,000개의 딜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갖추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트레이닝 교육인 'Boot Camp'를 비롯하여, 차세대 교육, 지역과 장비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각 지역의 딜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영업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서 밥캣은 더욱 뛰어난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유통,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80여 종의 어태치먼트를 제공하여 제품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편의성, Tier 4 Final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COMPACT DIESEL ENGINE - AT THE HEART OF THE GROWTH

두산인프라코어의 새로운 성장동력, 소형 디젤엔진 G2



신연소 기술 ULPC와 새로운 기술규격 'Non-DPF'를 적용한 소형 디젤엔진 G2. 최고의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고효율 · 친환경 엔진으로, 최신 배기규제인 Tier 4 Final을 충족합니다.

G2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

산업용 소형 디젤엔진 G2 개발에 성공한 엔진 사업부문은 2012년 전용공장 준공과 함께 본격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G2는 두산인프라코어만의 신연소 기술인 ULPC(Ultra Low PM Combustion)와 새로운 기술규격인 'Non-DPF'를 적용한 첨단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최신 배기규제인 Tier 4 Final에 대응할 수 있으며 높은 출력을 내면서도 연료와 엔진오일 소모가 적은, 즉 최고의 성능과 내구성을 두루 갖춘 고효율·친환경 엔진입니다. 인천공장 내 위치한 G2 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소형 디젤엔진 전용공장으로 연간 2만 5천 대의 CAPA(Capacity, 최대 생산량)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자동화 로봇을 조립라인에 적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예러 방지시스템과 무선 인식 전자태그(RFID)시스템, 제조실행시스템(MES) 등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춰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안정화된 생산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ON-DPF* SYSTEM

DPF 장착이 불필요해 유지보수 비용과 연비를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기술. 소형 디젤엔진 G2는 고가의 옵션 중 하나인 DPF 없이 엔진 자체 성능만으로 배기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Non-DPF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교체주기 연장

↑
500 시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

소형 디젤엔진 G2는 고가의 DPF를 장착할 필요가 없어 그 자체로도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지만, 부피 축소에 따른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후처리장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월등히 향상된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2 엔진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한국기계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기계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부품소재 분야에 단독 선정되었고,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밖에 2014년 2월에는 영국지게차협회 (FLTA)로부터 '올해의 우수상-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FLTA 시상 은 유럽지역에서 최고의 공인력을 인정 받는 시상입니다.

밭켓, 포터블파워 등으로 G2 엔진 공급 확대

소형 디젤엔진 G2는 굴삭기와 로더, 지게차 등 다양한 산업용 장비에 탑재가 가능하고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 기존 엔진을 대체할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에는 밧켓과 향후 5년간 소형 디젤엔진 3기종(1.8 l, 2.4 l, 3.4 l)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했습니다. 엔진 사업부문은 2015년 까지 밧켓 제품에 대한 G2 엔진 탑재율을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포터블파워(DIPP)와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 용 엔진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해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주)두산 산업차량의 2~3.5톤 지게차에도 G2 엔진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수익기반 확보

'2013 바우마(Bauma) 전시회'를 비롯하여 소형 디젤엔진 G2를 선보인 각종 전시회에 참석한 딜러와 고객들은 제품의 뛰어난 성능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출시 시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엔진 사업부문은 밧켓에 소형 디젤엔진 G2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신뢰도를 한층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Tier 4 Final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첨단 엔진 시장 진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도 기존 밧켓 탑재 엔진이 G2 엔진으로 대체가 마무리되는 2015년 이후 수익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룹 계열사 외 전 세계 주요 기업으로 판매처를 확대하여 G2 엔진을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엔진 사업부문
경영실적
및 전망
40p

소형 디젤엔진 시장 진출 계획

대상 시장 및 적용 제품

STEP 1
Entering Market

Tier 4 Final of US & EU
Korea & China Market



STEP 2
Expanding Market

for Agriculture Machinery & Generator Set
More Competitiveness



STEP 3
Creating Market

for Hi-power & Tier 5
for Gas Engine
for Light Commercial Vehicle



소형 디젤엔진 공급률 전망

■ Non-Captive ■ Captive
(단위: 천 대, 생산 Capa)

소형 디젤엔진 G2는 먼저 강화된 배기규제가 시행되는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거쳐 점차 글로벌 전 지역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공급 대상도 밧켓과 두산 계열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업체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37%까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GROWTH

기술 집약형 제품으로 또 하나의 도약을 시작하다

세계 공작기계 시장은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항공, 에너지 산업 등에 소요되는 대형 가공기를 비롯한 기술 집약형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 집약형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공기, 다축복합 가공기 등 기술 집약형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복합화·지능화·정밀화·고속화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국제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세계 최고의 공작기계 전문 메이커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 NEWS 01

 RELATED NEWS 02

 RELATED NEWS 03

DOOSAN

Catching global customers' eyes with competitive, high-end products

유럽국제공작기계전시회(EMO), 두산국제공작기계전시회(DIMF)와 같은 국제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세계의 고객, 딜러들과 소통합니다.



기술 집약형 제품 라인업 강화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신수요 산업의 성장에 대비하여 제품 라인업 확대와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기술 집약형 제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집약형 제품이란 복잡한 부품 가공이 가능한 다축복합 가공기와 대형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대형 공작기계를 통칭하며, 고도의 기술과 품질 수준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공작기계입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수평·수직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문형 머시닝센터, NC 보링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 집약형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기술 집약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밸류 체인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평·수직 터닝센터와 문형 머시닝센터, 보링머신의 대형 기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복합기 분야에서는 기존 고성능 복합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대형 고성능 복합기를 신규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직 머시닝센터 5축기와 수평 머시닝센터 신제품 개발도 손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 품질 등 밸류 체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고도화, 애플리케이션 기술력 확보 등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 집약형 제품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집약형 제품 경쟁력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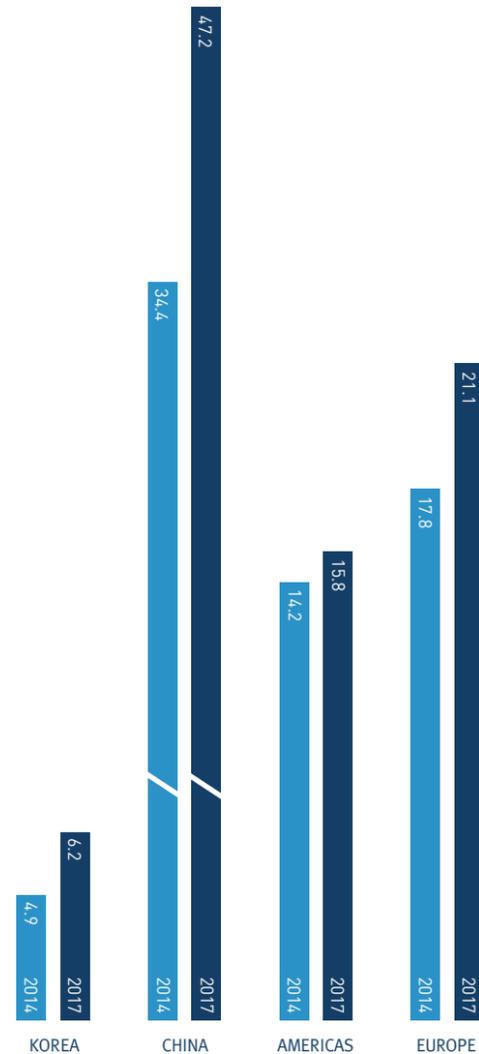
대형 가공기 생산 인프라 확충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기술 집약형 제품 사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창원에 대형 공작기계 전문 생산공장을 건설했습니다. 2012년부터 약 371억 원을 투자, 11만 607㎡의 부지에 연면적 1만 8,355㎡ 규모의 최첨단 공장을 건립하여 2014년 2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대형 공작기계 생산에 최적화 설계되었으며, 정밀 가공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0.001mm) 단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공작기계의 특성을 고려해 지반 개량을 통해 지반 흔들림을 최소화하였고, 항온·항습 조절 기능으로 가공장비의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야간 무인가공과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시스템을 갖춰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대형 기종의 수요 산업인 항공, 에너지 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해 향후 2단계 공장 확장을 통해 CAPA를 연산 1,000대에서 3,600대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요 지역 공작기계 수요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출처: Oxford Economics Global Machine Tool Outlook(2013년 10월)



Optimal Solutions for the Future

공작기계 사업부문의 새로운 솔루션 '미래를 향한 최적의 솔루션(Optimal Solutions for the Future)'은 고객 각각의 니즈에 가장 잘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 생각,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전시회 마케팅 활성화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주요 국제전시회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신규 고객과 딜러를 적극 발굴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창원 공작기계 공장에서 제 9회 두산국제공작기계전시회(DIMF: Doosan International Machine Tools Fair) 2013을 개최해 세계 41개 국 4,6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터닝센터 26기종, 머시닝센터 25기종, 방전가공기 4기종, 스위스턴 4기종을 비롯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형 가공장비까지 총 63기종의 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직교형 복합가공기 SMX를 최초로 공개하였고, 자체 개발해 성능과 기능을 개선해온 CNC 컨트롤러를 장착한 DOOSAN CNC D300, 최신 모바일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장비에 접근이 가능한 SMART-i시스템, 사용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오퍼레이션 패널, 손쉽게 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프로그래밍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유럽국제공작기계전시회(EMO: Exposition mondiale de la Machine Outil) 2013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차세대 복합가공기 SMX(Super Multi-tasking Turning Center)를 비롯한 신제품 8기종과 터닝센터 13기종, 머시닝센터 8기종, 보링머신 1기종, 스위스턴 2기종 등 총 24기종의 제품과 자동화시스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전시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앞선 기술과 높은 품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의 'SIMTOS(Seoul International Machine & Tool Show) 2014', 미국의 'IMTS(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2014', 중국의 'China-DIMF 2014'에 참가하여 기술 집약형 제품 신기종을 비롯한 제품 풀 라인업을 선보이는 등 전시회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 경영실적 및 전망 36p

품질 개선 로드맵

2012



품질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본부 수립
통합 R&D센터 착공

2014



기술품질 강화
고객 관점의 품질 향상
최신 규제 대응
감성품질 도입

ROAD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RELATED NEWS 01



RELATED NEWS 02

기술품질 확보를 위한
한국 업계 최초 건설기계 흑한기 테스트

고객만족을 향한 새로운 도전

고객만족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존재 이유이자 성장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의 초점이 고객에 맞춰져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시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고객의 마음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생각하는 고객 만족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제품과 서비스의 완벽한 품질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품질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에서 생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이 감탄하는 기술, 고객이 감동하는 디자인으로 새로운 차원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고객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도전에는 한계와 시한이 없습니다.

GOAL

Global
Top
Product



감성품질 강화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부가가치 제고



감성 디자인으로 고객만족도와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업계 최초로 설립된 통합 디자인센터

R&D 강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기술본부를 설립하였고, 560억 원을 투자해 통합 R&D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술본부는 개발 전략 및 기획, 설계, 시험 등의 제품 개발 전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하며, 품질과 원가, 성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본부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되어 품질강화 TFT를 구성하고 혹한기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품질 개선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점의 품질혁신을 위한 TFT 활동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에 고객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품질혁신 TFT를 진행했습니다. 품질혁신 TFT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품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TFT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516건, 중국에서 564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개선과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거쳐 제품 품질혁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3년 초기 품질에 대한 고객불만(접수) 건 수를 2012년 대비 31%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최신 규제인 Tier 4 Final 대응 제품 출시 및 감성품질 제고 노력 등으로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선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품질혁신 TFT 71p

혹한기 테스트를 통한 기술품질 확보 노력

추위가 한창인 2014년 1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철원평야에서 한국 업계 최초로 두산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 혹한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저온 테스트는 인천공장의 신뢰성센터 실험실에서 진행했지만, 고객이 실제 작업하는 환경 아래에서 장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 혹한지인 철원지역에 성능시험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3주간의 특별한 테스트에는 개발 단계에 있는 중요 기종과 경쟁사 장비가 포함되었으며, 극저온 상태에서 엔진 성능을 테스트 하기 위해 스웨덴 스카니아 본사에서도 전담팀을 파견해 테스트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능시험은 고객의 실제 작업 동선을 따라 상황 및 시간 별로, 연료 계통에서부터 매연과 전기전자 계통, 소음·진동 수준까지 저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일정에 맞춰 대기과 작업을 반복하는 장비의 특성을 고려해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 및 작동유 온도 등의 데이터는 수십 일에 걸쳐 분석하였습니다. 혹한기 테스트의 결과는 향후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성품질* 구현을 위한 디자인 역량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에 한국 업계 최초로 통합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고객 관점의 감성 디자인으로 고객만족도와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에 감성품질을 도입하는 목적은 고객들이 안정적인 품질뿐 아니라, 장비의 외형과 색상, 다양한 부가기능의 편리한 사용 등을 통해 보다 큰 만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합 디자인센터에서는 제품 기획, 영업, 연구개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전 과정에 감성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 단계인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고객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 디자인센터는 제품 내외관을 담당하는 스타일 파트, 색상과 소재를 담당하는 CMF(Color, Material, Finish) 파트, 클레이(Clay) 모형을 이용한 목업(Mock-up) 워크룸, 실제품을 가상으로 시연해보는 실내 품평장 등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두산그룹 주요 제품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 고유의 디자인 DNA와 전 제품을 아우르는 패밀리 룩킹(Family Looking)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디자인센터의 핵심 업무입니다. 'We Build Doosan Icon'이라는 디자인센터 슬로건처럼, 향후 두산 브랜드의 고유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감성품질: 어떠한 제품을 접했을 때 그것에서 느껴지는 '인지품질'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창조하는 감성품질

'트랜스포머'를 연상케 하는 차세대 굴삭기부터 최첨단 자동차를 떠올리게 하는 휠로더 등 두산인프라코어 감성 디자인이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컨셉 굴삭기 'CX'가 건설중장비 역사상 처음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s)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CX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어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공작기계 '푸마(PUMA) SMX 시리즈'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 중심의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차세대 복합 가공기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본 푸마 SMX 시리즈는 2013년에도 한국 굿디자인상과 호주 국제디자인어워드(AIDA: Australian International Design Award)상을 수상했으며, 다수의 국제전시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력 및 디자인 완성도 측면에서 고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도 편의성과 안전성, 친환경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감성품질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을 배려한 제품 개발 6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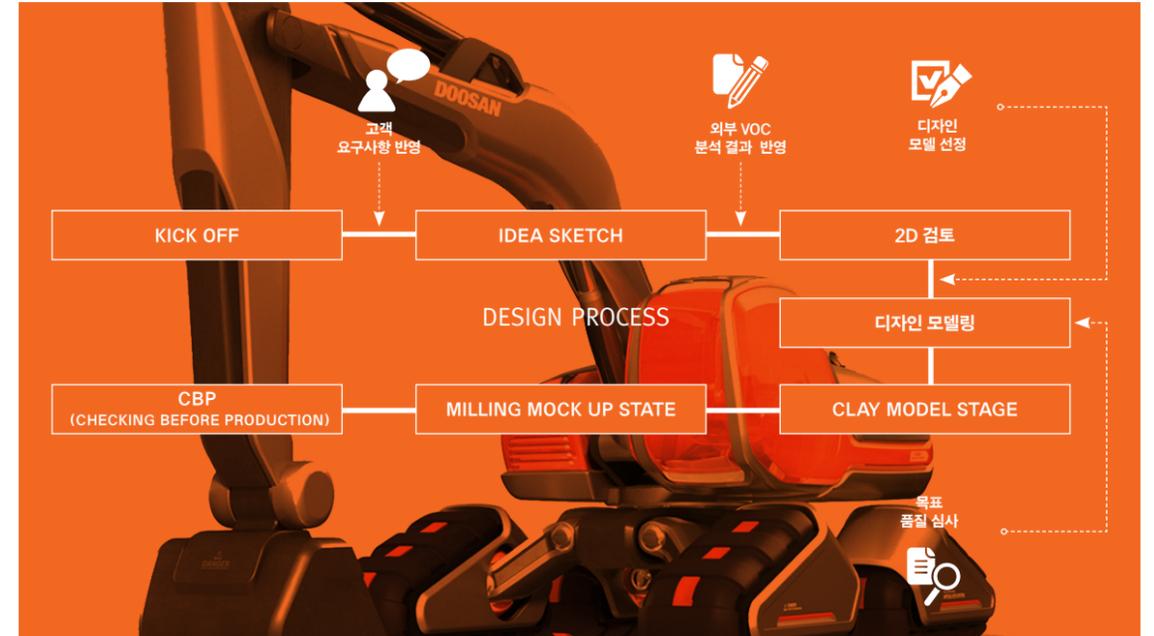
TECHNICAL QUALITY

PERCEIVED QUALITY

**고객과 함께 창출하는 공유가치
Creating Shared Value**

고객을 향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열정이 고객만족 활동을 넘어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동안 고객과 딜러를 대상으로 제품시연과 기술교육 등을 통해 장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기술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숙련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고 잠재적 고객층이 두터운 신흥시장에서 숙련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에게는 고급기술 습득과 취업 경쟁력 향상의 혜택을, 회사에는 고객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술인력 양성교육은 1차로 2014년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공작기계 활용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현지의 숙련 기술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CSV: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와 지역사회의 니즈가 만나는 곳에 사업적 가치를 창출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것





CREATING BUSINESS VALUE - CONSTRUCTION EQUIPMENT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1977년부터 우수한 품질의 중대형 건설장비를 전 세계 다양한 산업현장에 공급하며 인프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7년 밥캣, 2008년 목시를 인수해 중대형 장비에서 소형 건설장비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건설기계 분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였습니다. 두산(Doosan), 밥캣(Bobcat), 몽타베르(Montabert), 기스(Geith)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과 북미, 중국, 유럽, 남미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각종 건설장비와 어태치먼트, 이동식 공기압축기, 조명시스템, 발전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황과 경영실적

2013년 북미지역은 GDP의 성장과 주택 경기의 회복으로 성장세가 지속됐지만, 중국과 유럽 시장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었고 아시아, CIS,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은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북미지역에서 성능이 개선된 소형 건설장비 신제품의 성공적 출시, 채널 커버리지의 확대, 중대형 장비의 시장점유율 제고 등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시장 침체 속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규 채널을 확보하며 괄목할 만한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기타 신흥시장에서는 영업채널 구조조정에 따른 실적 저조로 전년 대비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에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5조 7,5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SCM(Supply Chain Management) 강화를 통한 재고관리와 원가절감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성능과 품질이 개선된 시장 맞춤형 중대형 장비와 밥캣의 M시리즈를 비롯한 소형 장비를 성공적으로 출시해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며, 서아프리카와 아시아, 북미 등의 지역에서 신규 딜러를 발굴하여 커버리지를 확대하였고 중국의 영업채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채널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두바이지역에 신규 부품공급센터(PDC: Parts Distribution Center)를 설립하여 부품 공급률을 개선하였으며,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내부조직 강화 등을 통해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차별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14년 영업환경 전망

2014년에도 건설기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지역은 배기규제 강화에 따라 시장이 다소 위축될 전망이며, 중국 시장은 거시경제지표 호전과 인프라 투자 증가로 하반기부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전망입니다. 남미와 CIS, 아시아는 경기 부진으로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제품 리더십 유지와 대형 제품 판매 확대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2014년에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신제품 출시 및 고객과의 접점 강화를 통해 중국과 신흥시장 내 중대형 장비 판매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Tier 4 Final 대응 굴삭기 및 휠로더의 성공적 출시, 채널 커버리지 확대, 핵심 고객 공략을 통해 대형 건설장비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한편, 건설 및 렌탈 시장 진입 확대, 소형 디젤엔진(G2) 탑재에 따른 Tier 4 Final 솔루션 강화 등으로 소형 장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품과 어태치먼트 사업을 강화하여 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향후 시장 회복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 품질, 채널, 서비스의 근원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탁월한 성능과 연비,
내구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두루 갖춘 두산 굴삭기**

작업 효율성 향상

- 강력한 성능의 두산 DL06 엔진
- 소음을 감소시킨 팬 클러치
- 고성능 콘트롤 밸브
- 최적의 유량제어 메인펌프
- 잔압 제거용 킥커플러

편의성 강화

- 통합 정보 대형 LCD 컬러 모니터
- 글래스 안테나 적용
- 운전실의 저진동 실현
- 통합 조작 스위치
- 후방카메라와 기본 정보 동시 구현
- 다기능 서스펜션시트와 슬림한 조향 컬럼

내구성 증대

- LED 타입 경광등 적용
- 프론트 파이프 밀림 방지
- 램프 보호 커버
- 고내구성의 메인 프레임
- 높은 내구성의 프론트
- 흡반이 팬더
- 크롬 도금 핀

정비성 제고

- 배터리 용량 증대
- 메인 프레임 발판 형상 변경
- 동절기 대비 수분 분리기 히터 장착
- 연료 주입구 재질 변경
- 냉각수 교환주기 연장

DX140W ACE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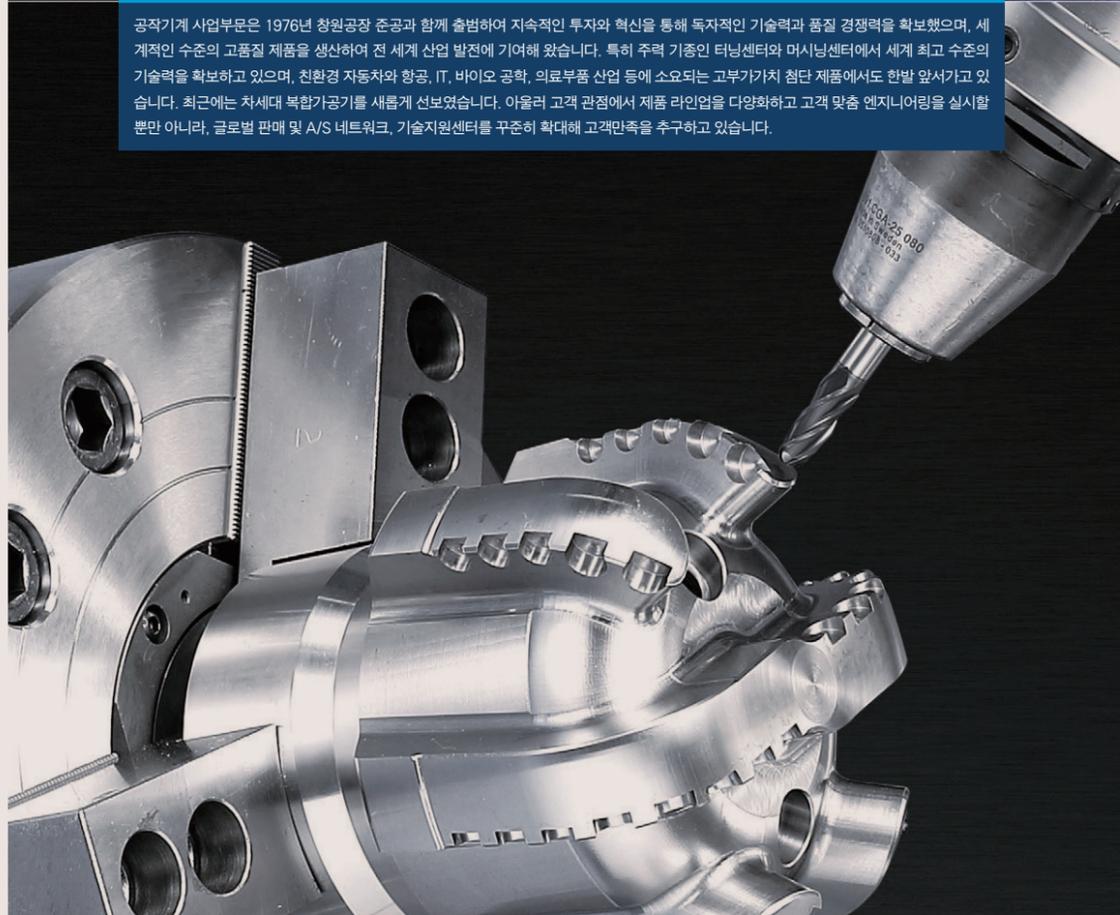
14톤 휠형 굴삭기인 DX140W ACE PLUS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과 품질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작업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편의사항을 추가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첨단 주행시스템으로 연비를 절감했습니다.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전자 중심의 편안한 운전공간을 갖췄으며, 엄격한 내구성 기준 설계와 가혹한 현장 테스트를 거친 우수한 부품을 채용해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점검에서 주요 부분의 정비까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설계하여 장비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잔압 제거용 킥커플러와 글래스 안테나, LED 타입 경광등, 프론트 파이프 밀림 방지, 램프 보호 커버와 슬롯 가공, 크롬 도금 핀 등을 적용하고 냉각수 교환주기를 연장하는 등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혁신으로 고객 만족과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CREATING BUSINESS VALUE - MACHINE TOOLS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1976년 창원공장 준공과 함께 출범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주력 기종인 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와 항공, IT, 바이오 공학, 의료부품 산업 등에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에서도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복합가공기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고객 관점에서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고객 맞춤 엔지니어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판매 및 A/S 네트워크, 기술지원센터를 꾸준히 확대해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황과 경영실적

2013년 공작기계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년에 이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세계 권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수립해 시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계 1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격적 영업에 나섰고,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판촉활동을 펼치면서 판매 네트워크 확대, 각종 전시회 참가 등으로 현장 마케팅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8.2% 감소한 1조 3,450억 원을 기록했지만, 동유럽과 중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략 신제품 출시와 지역별 성장전략 수립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자체 전시회인 두산국제공작기계전시회와 유럽의 EMO 전시회에 신제품을 대거 출품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전시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복합가공기 SMX(Super Multi-tasking Turning Center)가 딜러와 고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SMX는 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를 한 대의 장비에 집약해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와 함께 추후 회복세가 전망되는 유럽 시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성장전략을 수립해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2014년 영업환경 전망

2014년에는 공작기계 주력 시장인 북미지역의 제조업이 회복되고 유럽 시장도 점진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저의 영향을 받은 일본 경쟁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 산업인 항공 및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공작기계 기술 집약형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영업전략 실행

공작기계 사업부문은 2014년에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확보, 고객 접점 대응력 및 내부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전략 제품의 판촉 강화, 수요 산업별 타겟 마케팅 확대, 지역별 영업 네트워크 역량 제고, 신시장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실행해 선진시장의 회복에 대응하는 한편, 보다 치열해질 글로벌 경쟁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SIMTOS(Seoul International Machine & Tool Show) 2014', 미국의 'IMTS(The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2014'에 기술 집약형 제품 신기종을 비롯한 제품 풀 라인업을 출품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 에너지 산업 등 수요 산업의 성장에 대응해 기술 집약형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시닝센터와 터닝센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직교형 복합가공기**

강력한 복합 가공 능력

제 1, 제 2 스피들, B축, 밀링의 복합 가공 기능
구조해석설계를 통한 고강성 기계구조
직교형 구조를 통한 Y축 가공 영역 극대화

뛰어난 정밀도

오일 냉각 장치를 통한 스피들과 이송축의 열변위 최소화
고속 · 고정밀 이송계
0.001° B축, C축 정밀 제어 기능 탑재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

틀 매거진 전면 배치를 통한 손쉬운 공구 확인 및 교환 가능
높이 조절 및 회전, 좌우 이동이 가능한 조작반
편리한 ATC(Automatic Tool Changer, 자동공구교환장치) 조작반

PUMA SMX

SMX: Super Multi-tasking Tur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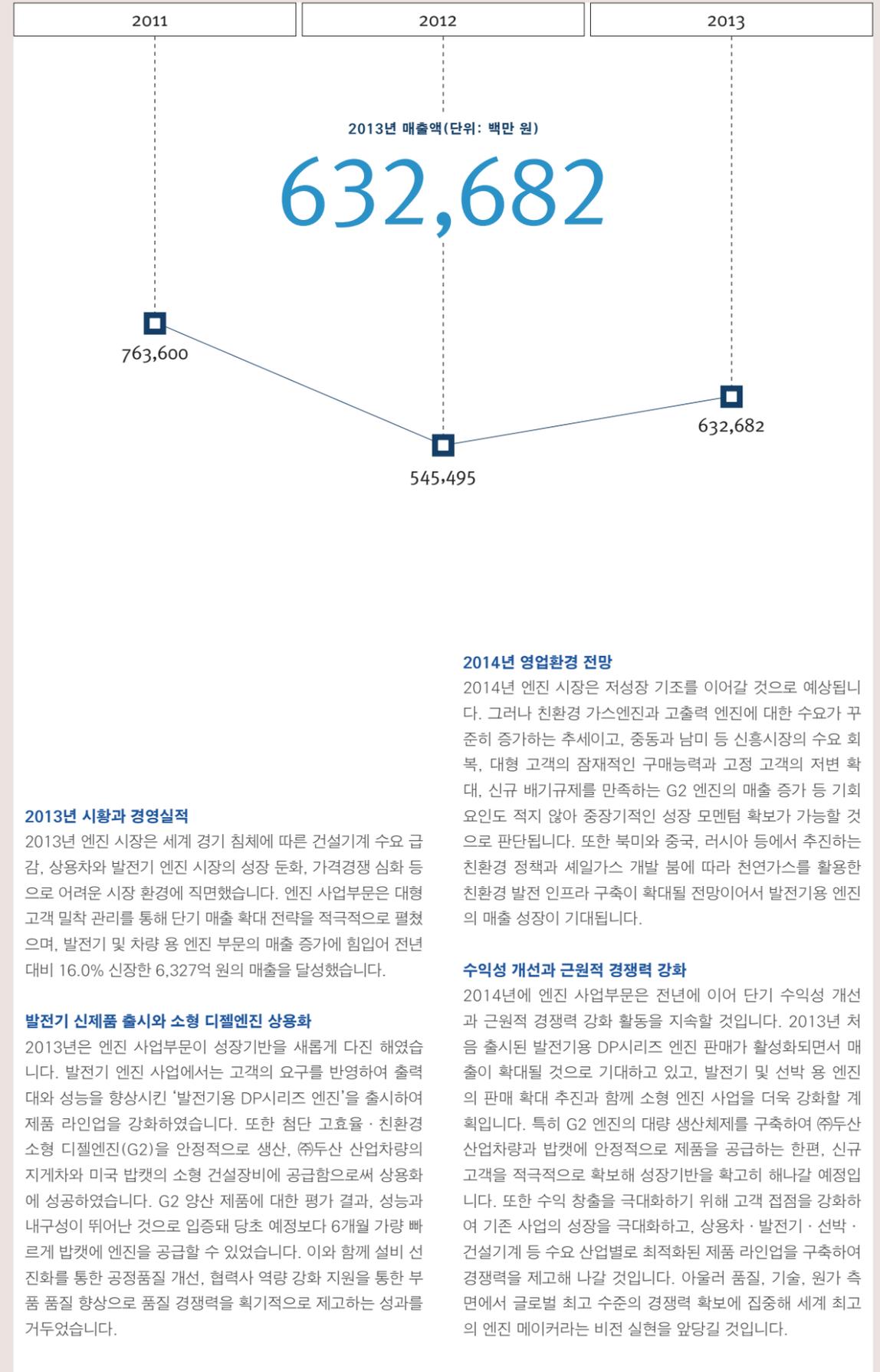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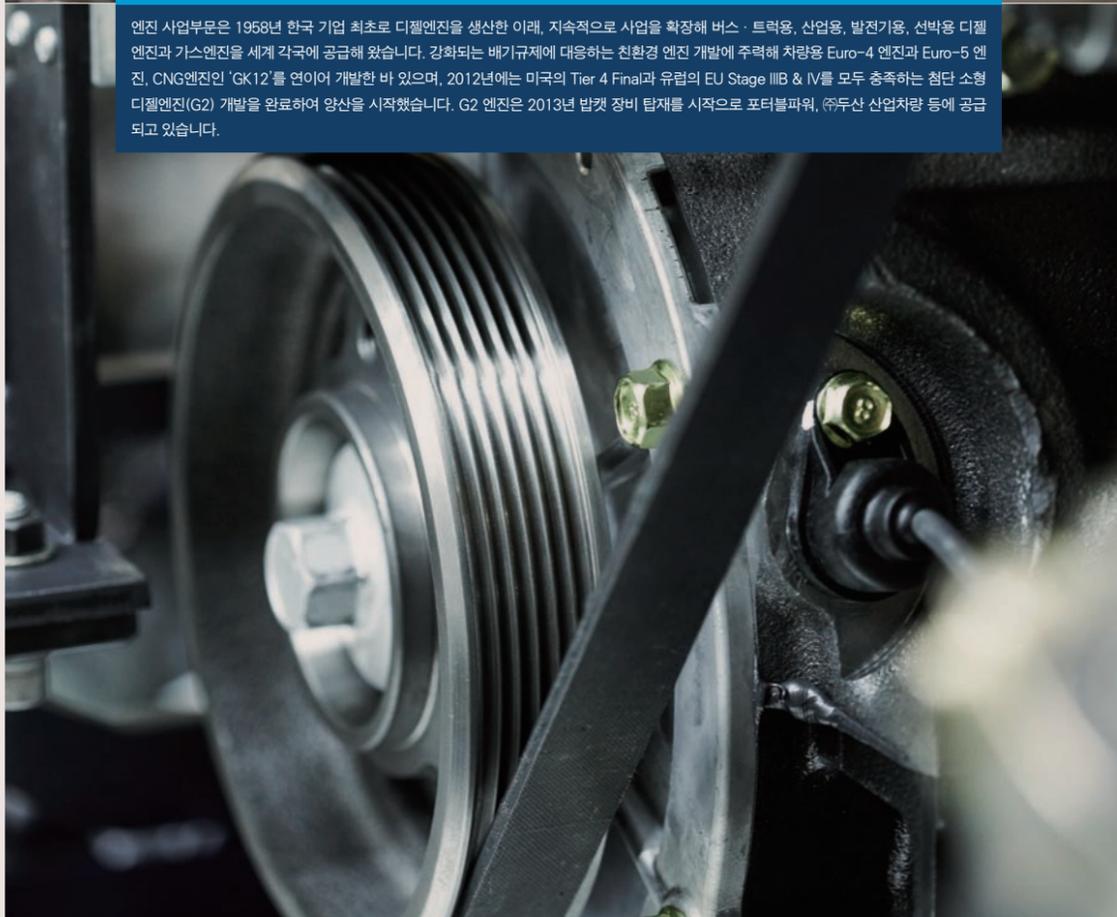
PUMA SMX 시리즈는 높은 생산성과 정밀한 가공능력, 편리한 조작성을 갖춘 차세대 복합가공기입니다. 머시닝센터와 터닝센터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으며, 고객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성능을 추가하고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대의 장비가 필요한 복잡한 형상의 부품 가공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인력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직교좌표 구조의 X-Y-Z 이송축 설계, 냉각 기능에 의한 열변위 최소화, 장시간 유지되는 정밀 제어 기능 등 동급 대비 최고의 가공능력을 갖춰 가공 부품의 품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하고 조작을 쉽게 해 작업능률을 높일 뿐 아니라, 유지보수 보조 기능을 제공해 유지보수가 더욱 용이해진 것도 장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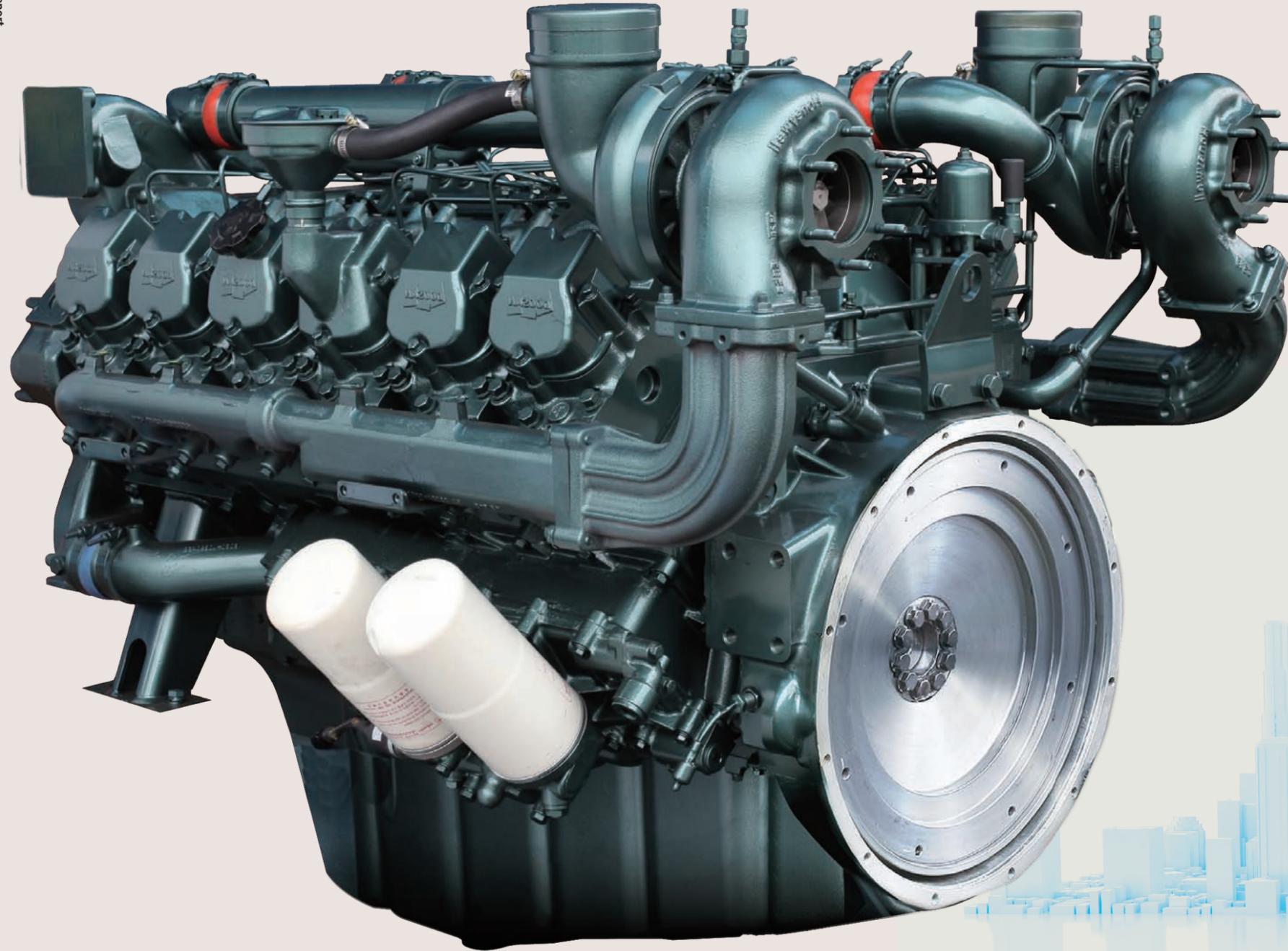
CREATING BUSINESS VALUE - ENGINES

엔진 사업부문은 1958년 한국 기업 최초로 디젤엔진을 생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버스·트럭용, 산업용, 발전기용, 선박용 디젤 엔진과 가스엔진을 세계 각국에 공급해 왔습니다. 강화되는 배기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엔진 개발에 주력해 차량용 Euro-4 엔진과 Euro-5 엔진, CNG엔진인 'GK12'를 연이어 개발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미국의 Tier 4 Final과 유럽의 EU Stage III B & IV를 모두 충족하는 첨단 소형 디젤엔진(G2)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G2 엔진은 2013년 밥캣 장비 탑재를 시작으로 포터블파워, (주)두산 산업차량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DP SERIES

DP: Diesel Power Generator



2013년에 새롭게 출시한 발전기용 디젤엔진 DP시리즈는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고객만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엔진 사업부문은 출력, 냉각 성능, 저온 시동성, 내구성과 제조 편의성, 사용자 안전성 등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제품 전반에 적용하였습니다. 두산의 기술력으로 출력대는 더욱 높아졌고, 기계식 타입을 유지하여 고객이 손쉽게 엔진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P시리즈 엔진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적용, 개선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출력과 품질, 내구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강력한 발전기용 디젤엔진

엔진 성능 향상

기존 엔진 대비 15~20% 엔진 출력 증대
높은 연비 효율로 Total Cost of Ownership 절감 실현

내구성 강화

엔진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강성 제고
고효율 라디에이터 적용으로 엔진 냉각 기능 향상

손쉬운 유지 보수

기계식으로 전자식 대비 보다 쉬운 엔진 관리 가능
엔진의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

DOOSAN WAY CHANGE MODEL: CHANGES IN PEOPLE & WORK



두산 Way 변화 모델로 사람과 일의 변화를 시작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유의 믿음이자 철학, 문화, 경영 방식인 두산 Way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두산 Way의 이해와 공감, 확산에 주력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두산 Way와 업무의 접목에 중점을 두고 두산인 양성, 선진화·과학화, 근원적 경쟁력의 '두산 Way 변화 모델'에 기반하여 전사적인 변화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자랑스런 두산인 양성을 위해 직무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무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선진화·과학화를 위해서는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CORE Office 활동을 펼쳐 업무 효율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임직원들은 사람과 일이 만나는, 참다운 의미의 두산 Way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두산인 양성 : 직무 전문가 육성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Way의 철학과 두산 Way 변화 모델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두산인을 양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직무 전문가 육성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FC(Functional Competency, 직무역량)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명확한 성장 경로 설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직무 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FC 진단을 통한 직무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FC(Functional Competency, 직무역량)는 먼저 주요 업무별로 확보해야 할 직무 전문성 단위를 나누고, 이에 따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험해야 할 업무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수준을 비교하여 현 수준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FC 진단 결과를 활용하면 내부 육성이나 채용, 부서 이동 등의 방법으로 조직 단위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개개인도 보다 명확한 성장 경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R&D와 생산 부문에 대한 직무별 FC 진단을 통해 직무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에는 영업, 구매, 물류, 해외, 기술 직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인증 제도

두산인프라코어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임직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인증 제도(Master 제도)를 도입해 R&D 부문에 시범 적용했습니다. 전문가 인증 제도는 해당 분야의 기술 선구자인 '마스터'와 팀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FC 코치'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스터는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사 및 사업부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이며 연구위원 전환 후보군이기도 합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전문가 인증 제도에는 3명의 마스터와 65명의 FC 코치가 임명되었습니다. R&D 부문의 시범 활동 이후 전사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직무 전문가 육성체계는 조직의 직무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산업 특성, 비전 및 전략, 조직 및 직무 구조, 조직문화, 인력 특성,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5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두산의 인재 철학과 균형을 맞추어 설계됩니다.



인재양성
강화
75p

선진화/과학화 : CORE OFFICE



CORE Office란 업무에서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과학화를 달성하려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스마트 오피스 프로젝트입니다. CORE Office는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확보된 시간을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업무 몰입도가 향상되고 근무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CORE Office 활동을 전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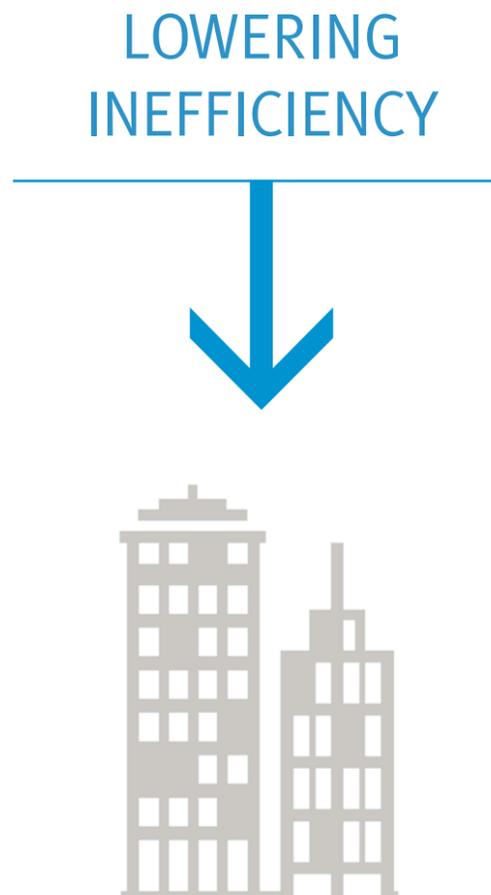
업무 효율화를 위한 CORE Office 활동

CORE Office의 프로세스는 이슈 발굴과 확정, 개선안 도출, 과제 실행과 모니터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슈 발굴에는 임직원 인터뷰와 함께 조직 비효율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업무 비효율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 업무 분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직급별 그룹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이슈를 확인하고 추가 비효율 요인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이슈들은 바로 개선할 Quick Fix 과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핵심이슈로 분류하여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바로 개선 활동에 들어가는 Quick Fix 과제와 달리 핵심이슈는 현업 액션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전사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게 됩니다. 과제 해결 과정에서 부서간 협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Cross Team 두산 Way Time'이라는 관련 부서간 토론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제 시행과 모니터링은 해당 부문의 운영혁신팀과 CORE Office팀이 담당하여 개선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CORE Office 시범 활동 성과와 전사 확산

CORE Office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3월까지 공작 기계 사업부문 85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3차에 나누어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개선과제가 완료된 1, 2차 프로젝트에서는 평균 55%의 비효율 감소를 보였으며, 3차 프로젝트에서는 6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이중 56건을 Quick Fix 과제로 선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12건의 핵심과제는 현재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엔진 사업부문 임직원 258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4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총 9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64건의 과제를 Quick Fix로 구분하여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32건의 핵심과제는 전체 비효율의 30% 감소를 목표로 하여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Operation본부, 기술본부, 영업본부 등으로 운영을 확대해 전체 현업조직에 대한 활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OUR PROUD NEIGHBOR, DOOSAN INFRACORE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이웃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Way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시민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이웃이 되어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하겠습니다.



Keeping Clean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가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친환경 사업장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에도 앞장서 청정한 생활터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37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인천공장은 토양오염 방지, 악취 저감, 분진과 폐수 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 봉사동아리 CEIper를 비롯한 공장 임직원들이 참여해 사업장 주변의 환경정화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약 6억 원을 투입해 인천공장 인근 갯이부리마을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방음벽 등을 건립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창원공장에서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여 인근의 하천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및 지역사회 환경영향성 관리
81p



Growing Together

신뢰와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상생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2, 3차 협력사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5개 협력사의 ERP, SCM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문과 1, 2차 협력사를 잇는 One Chain Single Plan의 기초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5개의 1차 협력사에 ERP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협력사마다 4개 회사씩 총 20개의 2차 협력사를 연결하는 SCM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력사들은 통합 전산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구매 발주와 입고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발주의 정확성과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85p



CHINA

Giving a Hope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그룹의 철학을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각지에서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드림스쿨과 주니어 공학교실 같은 한국 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중국과 신흥시장의 미래세대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1년부터 희망공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빈곤지역에 모두 1,025만 위안을 기부하고, 간쑤와 닝샤, 칭하이, 쓰촨, 충칭 등 20여 개 성과 시에 총 34개의 희망소학교를 세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매년 여름에 ‘두산희망여행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희망을 나누고, 꿈을 이룬다’라는 주제로 두산희망소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캠프를 열었습니다.

RELATED NEWS



드림스쿨
89p



주니어 공학교실
90p



중국 희망소학교
89p



RELATED NEWS

GUYANA



Giving a Chance

체계적인 기술교육으로 자립을 돕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장비를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고 자립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중남미 지역 딜러인 팜 서플라이스가 가이아나(Guyana) 현지 학교에 ‘두산기술교육 과정(Doosan Technical Course)’을 개설했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30명의 현지 젊은이들에게 2년 동안 중장비를 다루고 수리하는 기술을 교육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해 직접 채용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팜 서플라이스는 굴삭기를 교육 기자재로 기증했고,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교육에 필요한 기계 매뉴얼과 굴삭기 미니어처 등의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과 함께
창출하는
공유가치
30p

Contributing to Society



USA

기부와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밥캣이 1984년부터 지원해온 지역 골프 대회 후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열린 '제 49회 밥캣 노스다코다주 오픈 골프대회'에는 3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4일 동안 골프공 회수, 점수 집계, 카트 운전, 잔디 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대회의 수익금은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빌리지 패밀리 서비스센터'에 기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8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빌리지 패밀리 서비스센터의 건물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에 다양한 장비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 북미
91p



Loving & Helping



IRELAND

어린이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리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가족인 기스(Geith)는 아일랜드 슬레인에 본사를 둔 어태치먼트 설계 및 제조 분야 전문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더블린 사업장 임직원들은 2013년 '잭앤질 어린이 재단(Jack & Jill Children's Foundation)'이 주최한 자선기금 모금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재단은 뇌 손상을 입어 정신적, 육체적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집에서 단기간 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km의 험난한 코스를 완주하였으며, 성금을 모금하여 잭앤질 어린이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 유럽
91p

OUR CSR PERFORMANCE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에도 주주와 투자자, 고객과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지자체, 언론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CSR 경영의 역량은 보다 강해졌고 고객 가치와 품질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임직원의 성과와 만족이 커졌으며 세계의 모든 사업장에서 통합 EHS 경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협력사가 늘어나고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CSR 활동을 수행하여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p>1 CSR Management System & Management Overview</p>	<p>56p. CSR체계 및 경영 일반 CSR체계 책임 있는 지배구조 투명-윤리경영 리스크 관리</p>	<p>CSR체계, 기업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등 CSR 활동 전반과 경영 일반사항에 관한 기업의 철학과 전략, 주요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2 Enhancement of Customer Value and Quality Competitiveness</p>	<p>66p.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 혁신 고객 커뮤니케이션 공정마케팅</p>	<p>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품질혁신 노력과 함께 고객만족 제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3 Employee Value Proposition</p>	<p>72p. 임직원 가치 증진 인권 존중과 다양성 보호 고용 및 고용관계 인재경영 실천 인재양성 강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p>	<p>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두산인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상세히 담았습니다.</p>
<p>4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EHS System</p>	<p>78p.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통합 EHS 경영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환경 오염물질 및 지역사회 환경 영향성 관리 임직원 안전보건 리스크 예방과 관리</p>	<p>통합 EHS체계를 기반으로 지구환경 보전과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주요 활동과 각 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p>
<p>5 Mutual Growth through Win-Win Cooperation</p>	<p>84p.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지원</p>	<p>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경영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 실천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p>
<p>6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Social Contribution</p>	<p>88p.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사회공헌 전략 사내 사회공헌 문화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p>	<p>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미래세대 지원, 업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 지역사회 지원, 임직원 참여 등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p>

INTEGRATED CSR MANAGEMENT SYSTEM

CSR체계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언론 등으로 나누고, 각 그룹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조하는 경영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성장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CSR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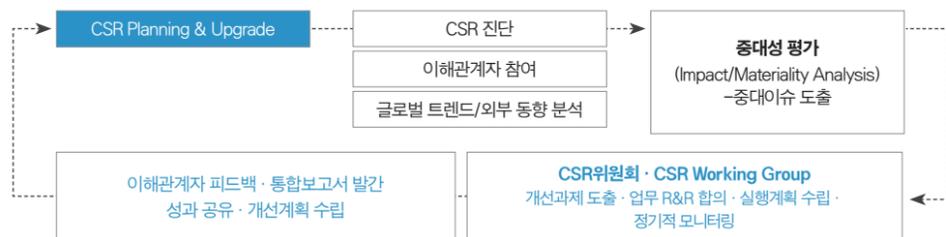
CSR 추진체계

두산인프라코어 CSR은 2011년부터 CEO 직속의 사무국 내 CSR팀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SR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CEO를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과 실행방향을 결정하며, 실무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CSR Working Group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실행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전담 실행조직인 CSR팀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슈 및 니즈 파악, 내부 CSR 수준 진단을 비롯하여 전사 CSR 과제 및 전략 수립, 성과 모니터링, 통합보고서 발간 등 CSR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CSR 추진체계



CSR 운영체계(연간 주요 업무 프로세스)



CSR위원회

두산인프라코어는 CEO와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CSR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전사 CSR 전략 및 정책 수립, 개별 프로그램 수행, 성과 리뷰뿐만 아니라, CSR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적 리스크와 기회를 모색하는 CSR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HR, EHS, 고객, 공정운영, 지역사회 등 5대 중점영역을 선정하고 전사 CSR 실행 지원을 위한 CSR Advisory Group을 조직하여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CSR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지하는 CSR 선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 두산 계열사 중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하였습니다. 본 선언은 내부 CSR위원회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UNGC의 10대 원칙을 지지하며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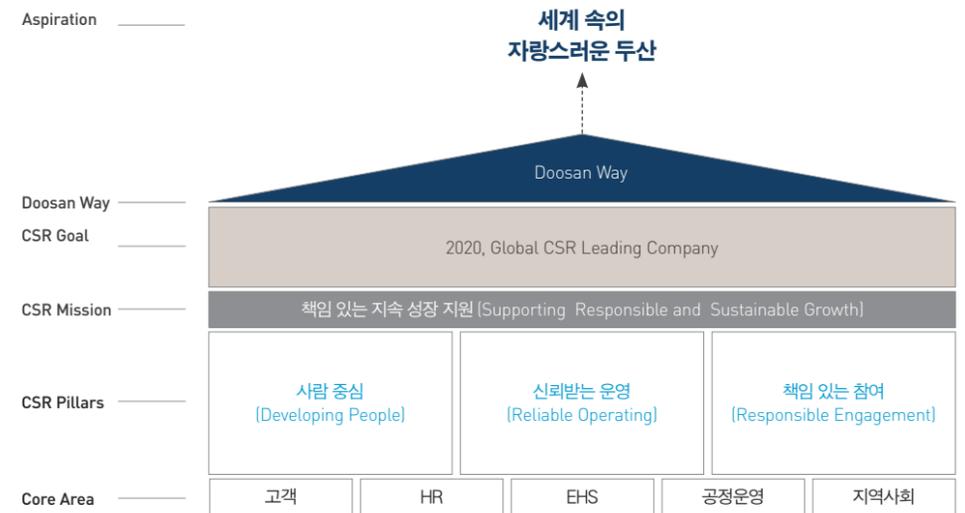


Non-financial Performance Review 2013 10p



UNGC 10대 원칙 106p

CSR 전략



외부 평가

- DJSI Asia Pacific 3년 연속 편입(2011년, 2012년, 2013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A등급 획득
- 서스틴베스트 평가 최고 등급 AA 획득
- EFC(구 에코프론티어) 평가 최고 등급 S 획득
- 2012 IR Report 영국 CRRA '창의성' 부문 우수사례 선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CSR 활동

중국법인들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희망소학교 건립, 환경보호 등의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작업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국가안전생산표준화 1급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지 협력사의 품질개선과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DICCC는 적극적인 CSR 활동 결과,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중국 건설기계 업계 최우수 고용주' 명예 칭호를 획득했으며, 2013년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기업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5개 중국법인들의 CSR 활동을 담은 CSR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선진기술, 품질경영, 인재양성, 환경보호, 동반성장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중국기업 사회책임보고 평가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비교성, 가독성, 혁신성 측면에서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관을 정확히 반영한 우수한 보고서라는 평가와 함께 4성급(최고 5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WTO 경제도감 잡지사, 북경대학교 사회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국제연구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13 금꿀벌 우수기업 사회책임보고서(2013 Golden Bee CSR Reports Honor Roll Awards)'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한국상회에서 발간하는 '재중 한국 기업 사회책임 백서'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의 '재중 한국 기업 CSR 모범사례 중문 버전', 상무부 산하 중국 외국상사투자기업협회의 CSR 우수사례로 수록될 예정입니다.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이해관계자 중심의 CSR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는 두산인프라코어 CSR 전략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고객과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와 요구는 각 기능별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소통 활동을 통해 수렴되며, 매년 CSR팀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슈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됩니다. 파악된 이슈를 경영 활동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CSR 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 시너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와
CSR 중대이슈
10p

이해관계자	주주/투자자	고객/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환경/NGO)	정부/지자체	언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는 두산인프라코어 CSR 전략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고객과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와 요구는 각 기능별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소통 활동을 통해 수렴되며, 매년 CSR팀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슈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됩니다. 파악된 이슈를 경영 활동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CSR 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 시너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주와 투자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질적 주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만족은 두산인프라코어 경영 활동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 입장에서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임직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이해관계자입니다. 두산인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역사회는 사업 활동의 기반이자 소중한 이웃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사업 활동의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성실한 세금 납부와 법규 준수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언론은 경영 활동의 견제이자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주요 이슈	수익성 개선 리스크 관리 공시 강화 건전한 기업재배구조 사업 기회 및 위험 관리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체계적인 고객 피드백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 및 편의성 개선 철저한 고객정보 보호 R&D 투자 확대 및 기술력 강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인재양성 지원 강화(교육 및 역량 개발) 일과 삶의 조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조직 내 소통 활성화	협력사 정보 공유 확대 협력사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재무/기술/교육/환경/윤리경영 지원 등) 협력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동반 진출 공정거래 강화	친환경 제품 개발 사업장 및 주변 환경 개선과 오염 방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소통 다양한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법규 및 규제 준수 민관협력 파트너십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채널	주주총회, 공시자료 투자정보 홈페이지 컨퍼런스 참가 수시 IR 미팅	고객 모니터링 VOC, 콜센터 공동워크숍 고객만족도 평가 통합고객관리시스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인트라넷, 사보 내부 소통 프로그램 Doosan Way Survey Doosan Way Time Top Management와의 대화	Suppliers' Day, 동반성장의 날 협력사 협의회 협력사 교육 협력사 컨설팅 지도/기술 지원	지역사회 간담회 사회공헌 활동 자매결연 지역 실무자 간담회	표준화사업 참여 국책과제 참여 공동협력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방문(견학)	보도자료 기자간담회 상시적 미팅 사업장 방문(견학)

ACCOUNTABLE CORPORATE GOVERNANCE

책임 있는 지배구조

주주 및 자본 구성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세계 140여 개 국에 생산 및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기준 발행 주식 수는 207,455,314주이며, 자본금은 1조 372억 원입니다. 최대 주주는 36.40%의 지분을 소유한 두산중공업이며,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싱가포르 투자청)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 7.76%와 2.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두산인프라코어 경영진은 주요 의사 결정이나 투자 결정 시 주주, 투자자,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수렴하며, 기업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적절한 가치를 인정 받아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정보를 투명하게 적시에 제공하는 선제적인 IR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4회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국과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증권사 컨퍼런스, NDR 등을 통해 연간 300회 이상의 IR 미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사업장 탐방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EO/CFO 간담회를 지속 실시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들과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액주주 보호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하여 서면투표제를 운영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시 주주총회 개별 안건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면 투표용지를 동봉하며, 주주는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기재하여 주중소집일 하루 전까지 회사에 송부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GIC(싱가포르 투자청) 투자 유치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 12월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했으며, 적극적인 해외 IR 결과 초대형 해외기관인 GIC(싱가포르 투자청)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GIC는 GDR 12,540,000주를 비롯해 장내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554,460주를 추가 매수하여 총 16,094,46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IC 지분율은 모기업인 두산중공업(지분율 36.40%) 다음으로 큰 7.76%입니다. 장기 성장의 대형 투자자인 GIC의 투자 유치는 추가 변동성 축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 대형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정보 공개

두산인프라코어는 법에서 정한 공시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CSR 활동 등에 대한 자율공시를 통해 재무 및 비재무 활동에 대한 균형 잡힌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공시 활동 현황

영업 잠정실적 공시
분·반기 보고서, 사업보고서
정기·임시 주주총회 관련 공시
자기주식처분 공시
지분변동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관련 공시
기업설명회 개최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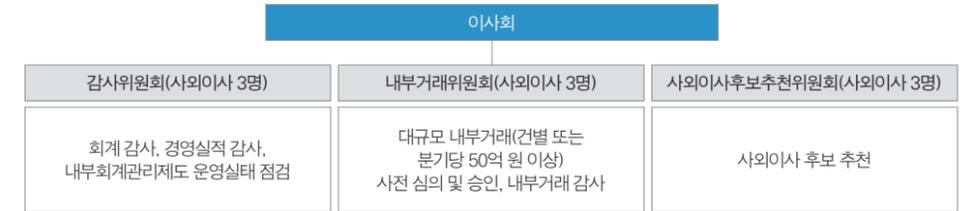
이사회 및 의사결정 시스템

두산인프라코어는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기업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결정, 차입, 합병 및 분할 등의 주요 경영현안을 감독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구성

두산인프라코어 이사회는 2014년 3월 말 기준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사외이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습니다.

기업 내부 의사결정시스템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3인의 외부인(사외이사, 양호철, 서정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에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의 2배수 이내의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최종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원 사외이사(이재훈, 윤세리, 권태신)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사회(사내이사 후보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후보자)가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합니다.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외 이사를 선임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외이사 3인 중 윤세리 이사는 공정거래와 내부거래 등 법률 분야, 이재훈 이사는 경제 및 환경 분야, 권태신 이사는 경제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 의결, 견제합니다.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경영 기본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IR 활동 등을 통해 수렴한 주주 의견과 임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미리 확인, 조정합니다. 모든 이사는 동영상과 음성을 사용한 원격수단으로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사회의 결정권은 대리로 행사할 수 없으며,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되, 사안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2014년 2월 기준)

구분	성명	현직/이사회 역할	2013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변동
사내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사장/이사회 의장		
	이오규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사장/이사		
사외	윤세리	법무법인 울촌 대표 변호사/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0%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80%	
	홍기종	법무법인 양현 변호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90%	2014.03.21 임기 만료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5%	2013.03.29 신규 선임

※ 2014년 3월 21일 사외이사 홍기종 임기만료 퇴임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TRANSPARENT AND ETHICAL MANAGEMENT

투명-윤리경영 운영 방침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룹 차원의 윤리규범(Code of Conduct)을 적용하며, 전자 ERP시스템, 전자구매시스템, 내부통제 평가시스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전자 운영시스템과 연동시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실무부서인 감사팀에서 투명-윤리경영의 확산, 평가, 감사 기능을 담당합니다.

윤리경영 소통과 확산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 두산 Way를 반영하여 윤리규범을 개정하고 이를 해외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수칙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기간 직전에 윤리강령 실천을 당부하는 CEO 메시지를 전 임직원과 협력사에 발송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윤리규범에 대한 교육은 임직원의 윤리관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업무와 연계된 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감사 혹은 신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원인과 개선방안 등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백서로 작성,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임직원 입사 시 윤리규범 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더불어 협력사 등록 시 협력사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징구(협력사 공인인증)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에 윤리강령과 제보 프로세스 등을 제공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2013년에는 징계 이후 인사 상의 불이익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계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윤리규범, 내부신고·백서, 위반사례 등을 수록한 교육자료를 추가로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리경영 교육 이수율(%)	2011	2012	2013
	98.8	99.4	99.3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감사 및 모니터링

두산인프라코어는 해외사업의 확대, IFRS 적용 등으로 사업영역과 책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2년부터 북미와 중국 지역에 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의 감사팀은 자회사의 책임경영을 존중하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3년에는 중국과 북미 등의 해외법인 감사팀과 합동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글로벌 감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내부통제 평가시스템

2006년부터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 영업, 구매, 생산 등 전 부문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CFO와 CEO 보고를 거쳐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은 2014년 중국법인을 필두로 전 세계 해외법인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업무감사를 위해 이사회와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 이사로부터 경영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보고에 대한 추가 검토와 자료 보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2013년에는 총 7회의 감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평가 및 보상

사내 및 사외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경영진의 보상과 경영성과를 연계한 성과연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위별로 정한 기준 금액인 기본 연봉과 함께 조직의 경영성과를 반영해 책정한 성과 연봉을 지급합니다. 2013년 사외이사에 지급한 보수 총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2013년 이사회 활동

2013년에는 10 차례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CSR 활동을 포함한 경영실적 보고,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의 건 등 총 38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의 이사회 참석률은 80%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이사회 내에는 감사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체계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며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감사위원회는 이재훈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3명의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계감사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와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

이사회 활동 내용

개최 일자	이사회 의안 내용	사외이사 참석자 수(정원)
13.02.04	2012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외 9건	3(4)
13.03.04	2012년도 감사보고서 · 제 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의 건 외 4건	4(4)
13.03.29	㈜두산과의 연간 예상거래 승인의 건 외 6건	4(4)
13.05.03	201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외 1건	4(4)
13.05.14	㈜두산캐피탈 지분 현물출자의 건	2(4)
13.07.24	201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외 1건	3(4)
13.10.28	201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외 3건	3(4)
13.11.21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의 건	4(4)
13.12.10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의 건(신주 발행 포함)	2(4)
13.12.10	사채 발행 대표이사 위임의 건 외 3건	3(4)

감사위원회 활동 내용

개최 일자	감사위원회 주요 내용	사외이사 참석자 수(정원)
13.02.04	2012년 결산 감사보고의 건 외 4건	2(3)
13.03.04	201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외 2건	3(3)
13.03.29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3(3)
13.05.03	2013년 1분기 결산 검토 보고의 건	3(3)
13.07.24	2013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외 2건	2(3)
13.10.28	2013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의 건	2(3)
13.12.10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용역 계약 협의의 건	3(3)

내외부 신고제도

두산인프라코어는 윤리경영에 반하는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센터를 비롯한 내외부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금품수수,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롯하여 두산 Way와 윤리규범 등의 내부규정 및 법령 위반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의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 신고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13년에 두산그룹 포털인 '두드림'에 신고센터를 개설했을 뿐 아니라, 우편과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신고된 내용은 프로세스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사내에 공유하여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 비리 제보/조치 건수 : 2011년 3건/6건, 2012년 0건/0건, 2013년 4건/4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CP 우수활동 포상 확대, CP 편람 정기적 업데이트, 사업부문별 전문가 육성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협력사로 CP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교육과 수출입 관련 규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CP 활동의 성과를 인정 받

아 2013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최고 등급인 'AAA' 등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창원공장은 통계청의 통계조사 우수 협력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세청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은 세관당국이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기계업계 최초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의 금융자회사인 두산캐피탈에 대한 자본 보유(14.26%)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선고 받았으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제적인 수준의 준법경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준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 준법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CP 운영실적 이사회 보고

2012년부터 반기 1회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법규 위반 모니터링 실시 결과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체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 가치를 저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다양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문별 리스크 관리 및 보고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실무자가 이상 징후를 적시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해 기동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 관리

시장 리스크: 외환 리스크는 미래 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영업 순투자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며, 당사에게는 환차손이 가장 주요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외화수급에 바탕을 둔 헤지거래를 실행하며 투기거래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관련 리스크는 주로 변동이 자부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보자금을 활용한 외부차입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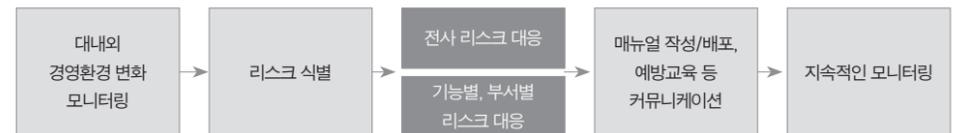
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정기적인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할 가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중요 투자자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는 통상적인 거래나 투자 활동에서 상대방이 계약 조건 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현금과 현금성 자산, 파생상품,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상대방의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신용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또한 당기 말 현재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채권의 경우,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는 주로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 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및 연간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과 투자, 재무 활동 관련 자금수지를 예측하며,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 유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 리스크: 자본 리스크 관리는 주주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며 주주 배당 조정, 자본금 반환, 부채 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체계



주요 리스크 및 대응방안

	주요 리스크	대응 내용
전략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	단기 수익성 극대화 및 근원적 경쟁력 강화
재무 리스크	제품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기술개발 및 적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환율 리스크, 이자율 리스크, 가격 리스크 관리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신용 위험 관리,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
	유동성 리스크	분기·연간 자금수지계획 수립
	자본 리스크	자본비용 절감, 부채 관리
운영 리스크	품질 리스크	품질관리체계 구축
	윤리, Compliance 리스크	비윤리적 부정사함에 대한 감사,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리스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교육
환경 및 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재난 리스크	사업장 안전 및 임직원 건강	현장(관리자) 주도형 EHS체계 구축, 임직원 안전·보건·건강 관리
	화재 예방 노력	자율 소방안전 관리(방재센터 운영)
	천재지변 대응체계 구축	재해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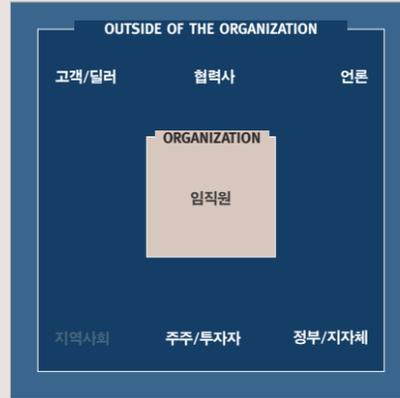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ENHANCEMENT OF CUSTOMER VALUE AND QUALITY COMPETITIVENESS

두산인프라코어 품질경영은 '관심 있는 설계'와 '정성스러운 조립'에서 출발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근원적 품질 경쟁력에 집중하는 엔지니어링 문화를 존중하며, 고객이 인정하는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 3 기계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 : Material Issue

KEY ISSUE

1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 혁신 **M**

2

고객 커뮤니케이션 **M**

3

공정마케팅 **M**

PERFORMANCE CHART

GOAL	2013 PERFORMANCE	2014 PLAN	2014 TARGET
1 품질경영체계 개선	품질 개선 전담조직 신설	품질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강화	기술/OP본부 품질담당 엔지니어 FC*역량강화
	DQMS*체계 개선	해외/OEM 품질표준 재정립	해외/OEM 품질표준 개정
	QMS* 평가 실시	QMS 평가 확대	중국 전 공장 QMS 평가
R&D 역량 강화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5.3%	R&D 투자 강화 지속	통합 R&D센터 구축
	통합 디자인센터 구축	품질문제 사전 예방 강화	Prevention Master 양성 및 FMEA* 강화
	DFSS* Black Belt 교육 실시		
지속적인 품질혁신	휠로더 핵심부품 개발	핵심부품 자체개발 추진	가격, 성능 및 품질 경쟁력이 확보된 구동계 핵심부품 개발
	부품품질 혁신 330 활동		
2 고객만족도 제고	보증기간 내 고객불만(접수) 건 수 16% 저감	고객불만(접수) 건 수 개선	고객불만(접수) 건 수 23% 저감
	고객 VOC 분석 및 공유회 개최	고객 VOC 관리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 프로그램 신설	현장 방문 프로그램 참여부문 확대	리더 및 엔지니어 현장 방문 확대 및
	설명회 개최 및 다수 전시회 참석	및 VOC 수집 고도화	Core VOC 확보
고객 관점의 품질혁신	품질혁신 TFT 운영	맞춤형 정보 제공	국내외 전시회 3회 이상 참가
	품질혁신 TFT 운영	고객지향적 품질혁신 활동 확대	고객 의견 반영 속도 개선
3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	안전 라벨 제공	제품 정보 제공 확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방지
	안전 라벨 제공		

*DQMS(Doosan Infracore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DFSS(Design For Six Sigma)
*FC(Functional Competency)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KEY PERFORMANCE INDICATOR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단위: %)

5.3



고객불만(접수) 건 수 저감률
(단위: %)

1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건 수
(단위: 건)

0



1.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 혁신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차별화된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경기 회복 시 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특히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단계별로 설정된 품질목표 달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고객의 의견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품질경영체계 개선

품질경영 전담조직 신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 관점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제공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3년 기술본부 내에 양산제품개발 선설계팀, Operation본부 품질보증팀 내에 FOM 파트를 신설하여 품질 개선 협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품질총괄 내에 고객 관점에서 품질경영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고도화하는 품질혁신팀을 신설하여 고객의 요구를 제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DQMS체계 개선: DQMS는 Doosan Infracore Quali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재정립하고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품질실적 자동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품질문제 관리체계의 지역적 확장을 통해 품질문제 관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품질문제의 재발을 막고 선대응할 수 있도록 굴삭기와 엔진의 개발 품질목표와 실적, 발생문제 이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품질역량 Schooling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품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기술사원의 핵심기능 전승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통일된 품

질경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외 사업장과 협력사까지 DQMS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평가: 두산인프라코어는 최적화된 품질경영 평가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에 대한 품질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중국 및 노르웨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QMS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품질평가 전문성 확보와 평가 대상 사업장 확대, QMS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품질 네트워크 구축: Operation본부 내 품질총괄 조직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중국, 노르웨이 지역의 품질 및 서비스 조직과의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품질 개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고객들에게 인정 받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R&D 역량 강화

R&D 투자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총 1조 1,990억 원을 R&D에 투자하는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사업인 건설기계와 엔진소재 부문에 2014년부터 3년 동안 약 7,572억 원 가량을 투자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본부와 품질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구인력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통합 R&D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과 연계된 핵심인력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고 있으며, 기술인력에 특화된 FC(Functional Competency, 직무역량) 도입으로 연구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존중 받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DFSS(Design For Six Sigma) Green Belt 과정을 마친 기술본부 팀장과 파트리더 22명을 대상으로 심화 단계인 DFSS Black Belt 1기 교육을 시행하여 한 차원 높은 개발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FSS를 비롯한 다양한 기법과 도구의 적극적인 보급과 활용을 통해 강건(Robust) 설계 역량을 확보하였고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 라이프 케어링 등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3년에는 신기술 개발역량 확보와 사내 연구개발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기획하여 207개 팀이 신기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

하였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굴삭기 Wireless Control & Monitoring Application’를 비롯하여 제출된 모든 아이디어는 별도로 특허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본부의 중장기 전략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방향: 두산인프라코어는 법규, 안전, 품질 관점의 NPD(New Product Development) 프로세스를 구축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혁신을 상시화 하였습니다. 기술본부는 주력제품인 굴삭기, 휠로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형 중장비 제품 개발, 배기규제와 연비규제를 만족하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엔진 제품 개발, 선행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APDC(Advanced Product Development Cen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적 기술 경쟁력 확보와 앞선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을 품질문제 집중 강화 단계로 설정해 전기전장품 품질문제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를 감성품질 강화 단계로 설정하여 제품의 동작성 및 편의성 개선, 광업 및 임업용 고수익 시장모델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작기계 연구개발에서는 첨단 전자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초정밀, 초고속, 고강성의 공작기계 개발을 수행합니다. 특히 항공, 에너지 등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FC

FC(Functional Competency): 직무 전문가 육성 46p

GD

기술 집약형 제품으로 또 하나의 도약을 시작하다 (공작기계) 24p

GD

두산인프라코어의 새로운 성장동력, 소형 디젤엔진 G2 21p

GD

속한기 테스트를 통한 기술품질 확보 노력 30p

GD

감성품질 구현을 위한 디자인 역량 강화 (통합 디자인센터)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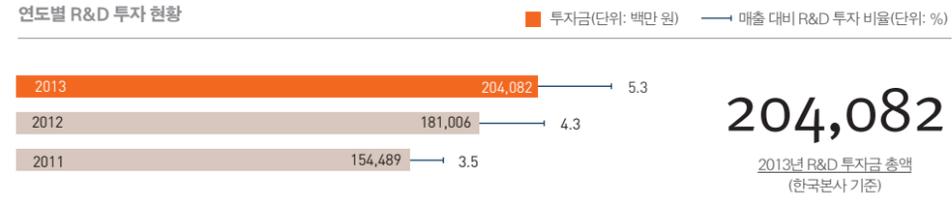
고객을 배려한 제품 개발: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성능과 운전 효율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감성품질 강화 노력은 개발 프로세스 전 과정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배출가스, 화재, 폭발, 소음, 운전자 시야, 차량 전복, 전자파 적합성 및 유해 화학물질 지침과 같은 세계 각국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제와 국제 표준을 검토하여 제품 개발 및 검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 기술규제인 한국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유럽의 ‘기계류지침(Machinery Directive)’,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와 ‘MSHA(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중국의 ‘GB Standard’ 등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품 개발목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목표와 설계간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는 시험과 공인기관 인증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혹한기 테스트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발적인 성능검증을 통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는 제품 안전에 대한 임직원 의식을 고취하고자 대형 중장비 제품 관련 법규 정보지인 ‘PSC(Product Safety & Compliance) TIMES’를 매달 발행합니다. PSC TIMES는 제품 안전 표준과 기술규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감성품질 강화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한국 용인시 소재 두산기술원에 건설기계 업계 최초로 통합 디자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췄으며, 이를 활용해 고객 관점에서 감성품질을 충족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 두산인프라코어는 하이브리드 굴삭기, 친환경 엔진 등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환경규제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친환경, 고연비 기술인 D-ECOPOWER를 적용한 친환경 소형 디젤엔진을 양산 개시하였습니다. D-ECOPOWER는 유압펌프를 전자적으로 제어해 연비를 높이는 두산인프라코어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9개의 압력센서를 통해 굴삭기 작동에 필요한 유량과 힘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유압펌프를 제어해 필요한 만큼만 공급되도록 하는 것으로, 작업성능은 높이고 연료소모는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시장에 이어 2013년 1월 한국에 첫 출시된 38톤 굴삭기도 D-ECOPOWER를 적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최대 20% 이상 연료효율이 향상됐습니다. 연료소모량은 12% 감소되었고 조작제어성은 20% 개선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 D-ECOPOWER 기술을 40톤 이상의 대형 굴삭기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 주요 연구개발 실적

과제 유형	개발 실적	주요 개발 내용	부문
개량/개선	47건	양산 굴삭기, 휠로더 품질 개선 및 검증	기술본부
		유압기기 내마모, 누유 개선 기술개발	
		발전기용 엔진 Power-up 개발	
		고속, 고출력 엔진의 구동계 성능 최적화 개발	
		고강도 주물소재 개발	
신기술/신제품	85건	공작기계 마찰저감 기술개발	공작기계 사업부문 연구개발
		공작기계 열변위 보정 기술개발	
		Tier 4 Final 배기규제용 굴삭기, 휠로더 개발	기술본부
		굴삭기, 휠로더 차기 모델 개발	
합계	132건	차세대 복합가공기 개발	공작기계 사업부문 연구개발

두산 Tech. Forum

두산그룹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를 강조하며, 좋은 결과와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보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융합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기술전문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두산 Tech.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박용만 그룹회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기술 분야 임직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25편의 기술논문이 발표됐으며,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술논문 발표는 기계, 재료, 전기전자, 건설·기술경영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이를 동안 이루어졌고, 선정된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13편에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본부 안현식 수석연구원 외 3인이 공저자로 참여한 ‘굴삭기 연비 향상을 위한 PCA(Pump Controlled Actuation) 유압시스템 개발’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3편의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우수 논문은 유압시스템 중 연비 개선 효과가 가장 높은 PCA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이 기술을 굴삭기에 적용할 경우 약 29.1%의 연비 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앞으로 매년 Tech. Forum을 개최하여 전 세계 임직원의 기술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기술 분야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기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지속적인 품질혁신

완성도 높은 제품 생산: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관부품 발청 예방, 유압품 청정도 개선, 절단품 정밀도 향상, 용접작업 표준화 등의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대상으로 3정6S* 지도, 출하검사체계 개선 지도, 시운전 검출력 강화, 시장 초기품질 문제 집중 개선 등을 시행해 불량부품이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시장 초기품질 고객불만(접수) 건 수를 31%, Front 품질 고객불만(접수) 건 수는 한국 본사 기준 66%, 중국 기준 94%를 저감하였습니다.

* 3정6S: 3정(정위치, 정품, 정량) 6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안전) 활동

핵심부품 자체 역량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로부터 납품 받는 부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공정불량 유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정불량률 30%를 개선하는 부품품질 혁신 330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 7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9개월간 개선 활동에 집중된 결과, 인천공장의 공정불량률이 전년 대비 61%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3개월 내 공정불량률 20% 개선을 목표로 추가적인 개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품질관리로 100시간 내 불량률(kPPM)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해 핵심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SD)은 2013년 휠로더 동력시스템을 구성하는 습식차축과 기계식 변속기를 자체 개발하여 휠로더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기계식 변속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핵심부품입니다. 중국법인은 2011년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에 고유모델인 DT501 변속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DT501은 2013년 파일럿 기간 동안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졌으며, 2014년 1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자제어 자동변속기를 비롯해 핵심부품의 자체 개발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2. 고객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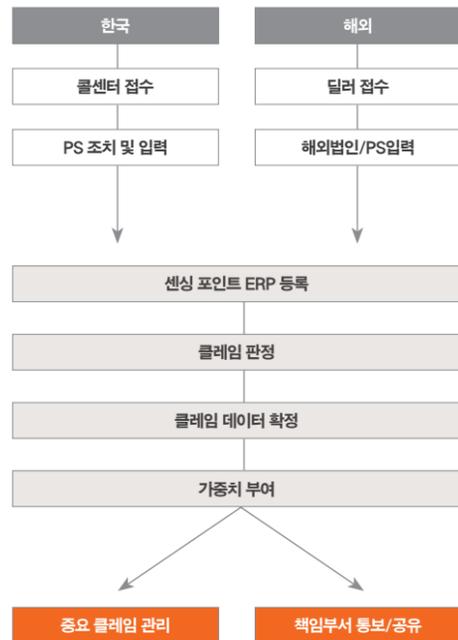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의 품질혁신을 이끄는 Operation본부의 조직문화 슬로건은 '고객 먼저, 품질 먼저, 내가 먼저'입니다. 이는 항상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에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두산 Way의 핵심이슈인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고객만족도 제고

VOC 관리(고객 의견 반영):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의 소리 안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주요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는 VOC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또한 반복 결함률과 중대 하자율 등 고객이 인지하는 품질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고객 관점의 품질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고객 VOC 공유회를 개최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이나 시장에서의 개선의견을 분석해 적용하며, 특히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고객의 목소리가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NPD(New Product Development)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기간 내 고객불만(접수) 건 수가 한국 본사를 기준하여 2012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중국법인(DICC)은 지속적인 고객만족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비스 부문 현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지속적인 제조품질 혁신으로 초기품질 고객불만(접수) 건 수를 전년 대비 23% 저감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보다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객 의견 반영체계



GO

VOC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건설기계 34p

공작기계 38p

엔진 42p

GO

기술 집약형 제품으로 또 하나의 도약을 시작하다 (공작기계) 24p

GO

품질혁신 TFT 30p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정기적인 고객 초청행사를 열어 신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 세계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제품 시연과 함께 상담이 가능하도록 실외 부스를 준비하거나, 협력사와 함께 참가하는 등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고객관리 통합 프로그램인 '디딤(DIDIM: Doosan Infracore Dealer Information Management)'을 구축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점의 품질혁신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 클레임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품질혁신 TFT를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품질혁신 TFT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고질적인 품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한국 본사는 2013년 4월부터 전장, 유압, 의장, 엔진 품질 등 총 8개의 기능별 TFT를 구성해 100일 동안 89명의 사내 전문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전장부품(Electric), 유압부품(Hydraulic)을 비롯한 총 6개의 기능별 TFT를 구성하여 66명의 현지 전문인력과 본사 지원인력이 함께 2013년 8월부터 120일 동안 개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TFT 결과, 한국에서 516건, 중국에서 564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발굴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공정마케팅

두산인프라코어는 영업, 마케팅,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며, 2013년 한 해 동안 허위, 과장, 과대 광고 등으로 법적 제재조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준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이해관계자 편의성을 높이는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제품 라벨 부착

두산인프라코어는 모든 생산 제품의 설계에서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조물책임 및 제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기능별 업무 범위와 추진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운전과 정비를 위해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 경고, 주의 단계로 분류된 안전라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뉴얼의 첫 머리에 고객이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설 기계에 부착된 안전라벨은 ISO 9244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되며,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운전자 매뉴얼은 ISO 6750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안전규격, 중국안전규격, 제조물책임법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예방활동을 충실히 전개합니다.

개인정보 보안 강화

2012년에 신설된 정보보안팀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실무자로 지정하여 전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모두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 개인정보 열람과 과다 열람 등의 오남용, 유출 의심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부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물류배송업체, 교육센터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최소화 및 시스템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3년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법률 위반으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품질혁신 T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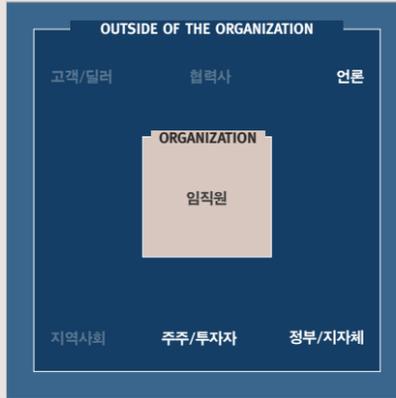
품질혁신 TFT 결과, 2015년까지 70억 원 이상의 품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프 안테나 파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산 속에서 작업할 때 주변 장애물로 인해 장비의 샤프 안테나가 쉽게 파손되던 불편사항을 창 유리에 안테나 패턴(Antenna Pattern) 처리를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한 것입니다. 경쟁사 장비에는 없는 특징이 되면서도 파손 예방뿐 아니라, 수신감도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임직원 가치 증진 EMPLOYEE VALUE PROPOSITION

두산인프라코어의 근원적 경쟁력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조직 구성원의 성장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장을 이루고 그 수익을 다시 임직원에게 재투자하여 회사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 즉 사람과 사업의 조화로운 성장(Growth of People, Growth of Business)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추진하는 2G 전략입니다.



M : Material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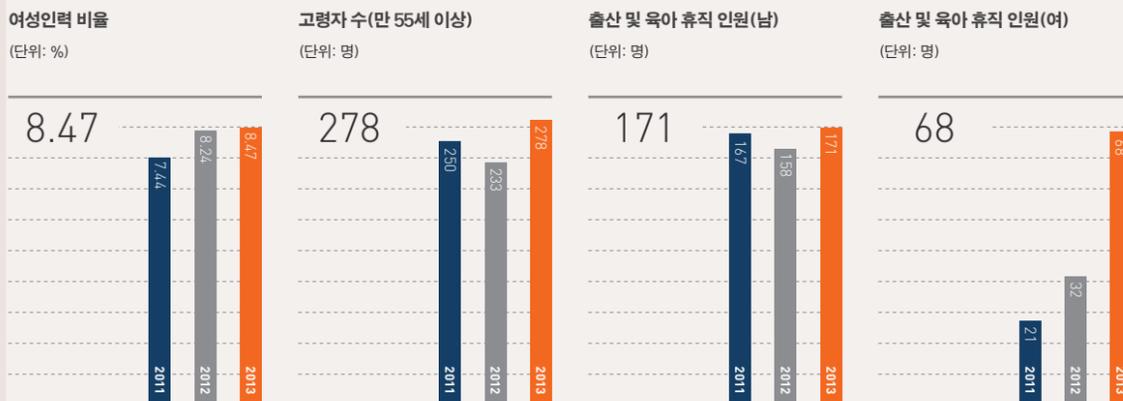
KEY ISSUE

- 1
인권 존중과 다양성 보호 M
- 2
고용 및 고용관계 M
- 3
인재경영 실천
- 4
인재양성 강화
- 5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PERFORMANCE CHART

GOAL	2013 PERFORMANCE	2014 PLAN	2014 TARGET
1 인권 존중 임직원 다양성 보호	윤리강령 개정	윤리경영 교육체계 구축	교육체계 구축
	기술본부 내 여사원 Council 구축	여사원 Council 확대	여사원 Council 사업부문 적용 파일럿 실시
2 고용관계 개선	비정규직 80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가 전환	비정규직 비율 1%대로 감소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제도 시행 및 관련 규정 개정	전 직원 대상 설명회 시행
3 가족친화경영 실천	가족돌봄 청원 휴가제도 도입	가족친화제도 참여 독려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홍보
4 직무 역량 강화	직무 전문가 제도 구축	FC체계 구축 및 육성체계 확립	전 직무 FC체계 구축
	융접 트레이닝센터 구축	기술전문가 양성 강화	기술인 광장 설립
	제품 조립 트레이닝 습 구축		
5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	EDU시스템 구축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정착	학습동아리 및 자발적 활동 성과 공유, 참여 지원
	러닝 크레디트 제도 도입		
	현장 경쟁력 향상위원회 운영	현장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지원	대화 채널의 정기적 운영
	상호존중문화 정착 활동		

KEY PERFORMANCE INDICATOR



1. 인권 존중과 다양성 보호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함과 따뜻함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팀워크를 추구합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인재를 선발, 배치, 평가하고 양성하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 선포한 두산 Way를 바탕으로 2013년에 새로운 윤리강령을 선포했습니다. 윤리규범은 '인화', '정직과 투명성', '공정한 경쟁', '고객 중심/혁신과 성장', '사회공헌/안전과 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원칙으로 실현될 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함께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화는 정당함과 따뜻함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팀워크로, 임직원의 인권 존중과 열린 소통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Way와 윤리강령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 평가 및 보상 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화의 정신에 위배되는 폭언, 폭력,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학연, 지연 등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라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준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협약을 준수하여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다양성 보호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14,309명의 임직원을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말 기준 한국에 5,655명, 한국 외 지역에 8,65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이 5,515명(97.5%), 비정규직이 140명(2.5%)입니다.

한국 사업장의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2년 11개월이며 여성 비율은 약 8.47%입니다. 이 비율은 유사 직종인 중공업 내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보다 높습니다. 기계제조업의 특성 상 여성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나, 여성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분석과 배치를 통해 여성인력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본부의 경우 여사원이 최근 5년간 3.5배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심사 결과'에서도 여성인력 확보와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시행, 적정한 고용관리 개선 계획 등으로 '적정'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간제로 채용하던 전문직 여성인력의 업무를 전문업무로 분류하여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육아 등을 고려해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여성인력에 대한 선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인력 중 여성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기술본부 여사원을 중심으로 최초의 여직원 의회인 '여사원 Council'이 구성되었습니다. 여사원 Council은 사내의 다양성 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정기 뉴스레터와 특강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2. 고용 및 고용관계

두산인프라코어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노동협약을 준수합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 회원사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지지하며 차별과 아동 및 강제 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를 이행합니다.

고용관계 개선

일자리 창출: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정규직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하며, 역량 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제품 시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직 8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소속감과 업무 효율을 높인 데 이어, 순차적인 전환과 근로조건 변경을 통해 현재 2.5%인 비정규직 비율을 1%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인천공장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장시간 근로의 개선으로 정규직 60명과 기간제 16명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했으며, 역량 검증을 거쳐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년 연장: 한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지속적인 근로를 통한 사회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2013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같은 사회 분위기와 임직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도래하는 분기말부터 60세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연봉수준은 단계적으로 낮아지지만 최소 70% 이상의 연봉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주로 후임 양성과 지식 공유, 정년 이후 제 2의 인생설계를 준비할 시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봉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거나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퇴직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노동정책 준수: 고용노동부의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내 하도급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 하청에 대해 2013년 6월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라인 내 작업 혼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인재 채용

두산인프라코어는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학점 기재란을 없애고 한국 내 상장사 중에서도 상위에 포함되는 충분한 보수기준을 제시하는 등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두산인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생 입사 선호도가 높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사실이 없으며, 국가보훈자에 대해서는 한국 법령에 따라 우대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두산반' 운영을 비롯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인재경영 실천

두산인프라코어는 '따뜻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신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회사 업무와 가정 및 여가 생활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의 인재상에 기반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개인별 강점과 개발할 점을 파악하여 성장과 육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사시스템은 두산 Way를 반영하여 사람에 대한 육성이 가시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고, 성과평가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평가 시에 리더와 평가대상자간 1:1 평가와 피드백 면담을 진행하여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평가 결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두산 Way 실천

2013년은 두산 Way 실천의 원년으로, 리더들의 솔선수범 아래 강력하고 따뜻한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두산 Way 조사를 실시했고, 8월에는 두산 Way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2013 CEO와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CEO와의 대화에서는 두산 Way 조사 결과와 품질혁신 TFT 추진 결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두산인 양성 방안 등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CEO와의 대화는 전 과정을 녹화해 '두산 Way Time'을 통해 전 임직원에 공유했습니다.

가족친화경영

회사 업무와 가정 및 여가 생활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주 이상의 하계 집중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며, 회사 어린이집과 모유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임직원을 위한 가족 돌봄 휴직과 자기계발, 불임·난임 치료 등을 위한 청원 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인의 일상이 행복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월 1회 '패밀리 데이'를 시행해 가족과 여가시간을 가지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경영설명회와 두산가족 문화제, 가족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인재양성 강화

두산의 인재는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더 나은 역량을 위해 노력하며 두산의 철학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재육성의 방향성을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산인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직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

직무 역량 육성체계: 개인별 성향과 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직무 역량 육성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전문가 내부 육성 트랙을 강화하고 직무 역량에 기반한 CDP(Career Development Plan) 제도를 정비하여 직원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전문가 Pool과 교육시설,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자기주도 육성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휴가·휴직제도

제도	내용	대상	기간
육아휴직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각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	자녀를 가진 임직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두 제도 합해 최대 1년
출산 전후 휴가	출산 관련 휴가	출산,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직원	최초 60일간의 유급휴가, 30일간의 무급휴가
가족 돌봄 휴직	돌봄을 위한 휴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임직원	3일간 유급휴가
청원휴직	임직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청원 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6개월 + 6개월 가능
		자기계발, 불임·난임 치료 등이 필요한 임직원	6개월 + 6개월 가능

기술전문가 육성: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인의 장인정신과 자부심을 존중하며 미래를 이끌 기술 전문가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사원을 대상으로 6 직위별 총 22개의 직무 전문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위별 승진자 과정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람 중심의 현장관리자를 육성합니다. 2013년에는 인천공장에 용접기술 전문교육장인 '용접 트레이닝센터'를 마련하였고, 안산공장에 제품 분해조립 실습이 가능한 '조립 트레이닝 숏'과 '조립/유압/공구 사용 실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창원공장의 공작기계 교육센터를 비롯하여 각 공장별로 특화된 교육 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을 장려해 분야별 기능장 자격 취득자에게 '기능장 휘장'을 부여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장 및 기술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기술 전문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인천공장 본관에 분야별 사내 최고 기술 전문가의 핸드프린팅이 설치된 기술인 광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 향상과 기술 전문가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기능장 휘장'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DU(e-Doosan University)시스템 구축: 2013년 두산그룹 통합 e-HRD 포털인 EDU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EDU는 교육 정보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과 툴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주도적,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스마트 기기로 접속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HRD 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육성 인덱스 표준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FC(Functional Competency):
직무 전문가 육성
46p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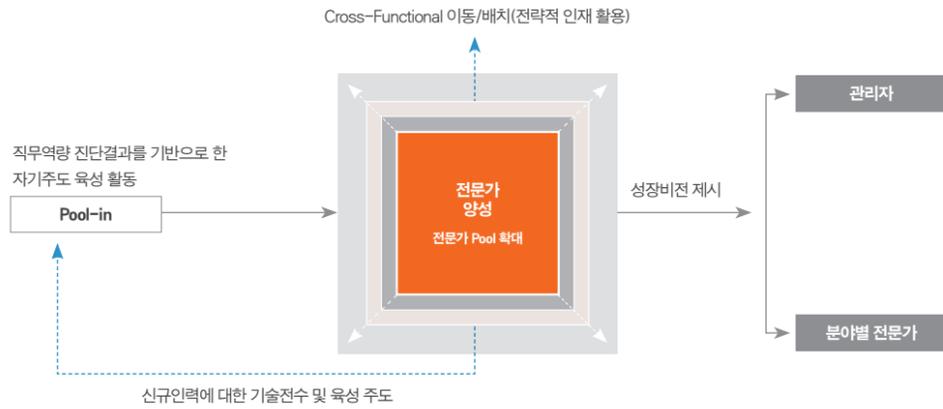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직무역량 육성체계



러닝 크레딧(Learning Credit) 제도 도입: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에 사무직 사원을 대상으로 학점 이수 제도인 러닝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학습계획을 직접 수립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크레딧'과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페셔널 크레딧'으로 구성돼 학습자들이 리더십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두산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학습동아리 활동: 자발적이며 자기주도적으로 업무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학습동아리가 전사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130개 학습동아리에 1,331명이 참여했습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기술직 학습동아리는 직무자격증을 보유한 코칭리더가 중심이 되어 운영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25개 기술직 학습동아리에 185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술직 학습동아리 참여자의 약 70%가 기술주임 이하 젊은 사원들입니다. 학습동아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토대로 업무와 관련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개인과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활동성과 공유: 임직원들이 현업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지식공유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현업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집단지성 활성화 프로그램이 연간 36회 개최되어 1,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직 내 주요 수상사례와 업무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실천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는 등 상하좌우 열린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현장 업무의 선진화 및 과학화 활동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직별 활동 Best of Best 공유대회'와 '공장간 직별 활동 공유회'를 통해 주요 활동에 대한 경험과 제안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2013년에 8회째를 맞은 직별 활동 Best of Best 공유대회에는 회사의 모든 경영진을 포함해 중역, 팀장, 기술직 사원과 노동조합 및 주요 협력사 임직원까지 약 200여 명이 참여하여 개선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처음으로 시작된 공장간 직별 활동 공유회에는 한국과 중국의 6개 사업장 우수 테마리더와 현장관리자가 참가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리더십 강화: 조직의 운명은 리더들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두산인이 직급별로 갖춰야 할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체득을 목적으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 교육: 두산인프라코어는 해외법인의 HRD 유관부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HRD 정기협의체를 통해 핵심 교육과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본사와 중국 HR 담당 부서간의 'China HRD Committee'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재무 교육프로그램인 'GCC(Global CFO Course)'를 개설하여 두산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근무환경 적응 교육: 해외 파견 임직원이 새로운 업무환경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와 문화, 업무방식의 차이 등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인 '문화교류 교육(Cross Cultural Train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지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 사업장 투어 등을 실시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가치 공유 프로그램(Value Sharing Program)'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에는 중국 현지 채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 1기 China Value Sharing Program'을 실시하여 두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 상 연관성이 높은 한국 내 직원들과의 실무적인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업문화 공유

멘토링 프로그램: 신입 임직원의 적응을 위해 실시하던 멘토링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외부 영입 중역과 기술직 신입사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임원 멘토링은 외부 영입 임원들이 두산 Way에 기반한 리더십을 갖추고 고유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6개월에 걸쳐 1:1로 매칭된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술직 신입사원에게는 올바른 조직관과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9개월 동안 1:1로 매칭된 멘토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실시: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위한 생애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유머와 화술'을 시작으로 5가지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반전 인생목표 설정', '변화관리', '건강관리 해법' 등의 강좌를 제공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사간 대화채널

노사협의회	근골격실행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현장 경쟁력 향상위원회	노사합동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두산인프라코어 노사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 상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 노사관계 구축으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 인천공장과 군산공장이 각각 2013년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하였고, 중국법인(DICC)은 '산동성 모범 노조'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사관계 일반

2012년 상생노조 출범 이후 '항구적 무파업 선언', '임금 위임을 통한 최단 기간 내 단체교섭 마무리', '기술직 인사제도 개선' 등의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노사간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쟁력 향상위원회 발족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회사와 노동조합, 현장관리자가 참여해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경쟁력 향상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돼 임직원의 건의사항 처리, 상호 존중의 문화 정착 캠페인 실시, 임직원 참여 행사 개최 등에 대한 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영 지원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조합은 영업, 마케팅, 품질 개선 등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원에도 적극 협조하여 2013년 품질혁신 결의대회 참석, 우수고객 방문, 고객 초청 간담회 참석, 노조위원장 명의의 고객 감사편지 발송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노동조합 내에 고객지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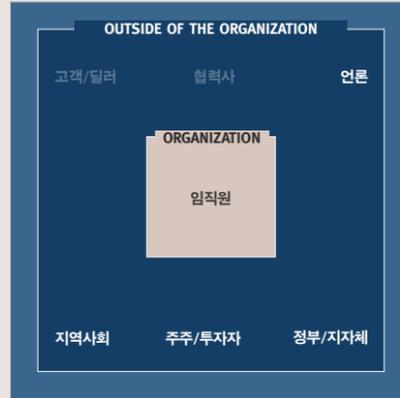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EHS SYSTEM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환경과 건강, 안전을 중시하며, 통합 EHS(Environment, Health, Safety)시스템을 통한 효율성 강화, EHS 인력의 리더십과 전문성 강화, 자율안전 보호체계 구축, EHS 관리의 탁월성 강화를 EHS 경영의 4대 전략방향으로 정하고 전사 통합 EHS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M : Material Issue

KEY ISSUE

- 1**
통합 EHS 경영
- 2**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M**
- 3**
환경 오염물질 및 지역사회
환경 영향성 관리 **M**
- 4**
임직원 안전보건
리스크 예방과 관리

PERFORMANCE CHART

GOAL	2013 PERFORMANCE	2014 PLAN	2014 TARGET
1 글로벌 통합 경영체계 구축	EHS 글로벌 평가 실시(한국 4개 사업장, 중국 3개 사업장, 유럽 3개 사업장)	평가 지속 및 북미지역 확대 실시	한국 내 법인: 80점 한국 외 법인: 70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EHS 표준 재설정 EHS 직무분석 완료	EHS IT시스템 고도화 EHS 아카데미 운영	통합 EHS 아카데미 교육매뉴얼
2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사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수행을 위한 사전 대응기반 구축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탄소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에너지 절감 TFT 운영 목표 대비 13% 초과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자발적 추가 산정 관리	법규 허용량 대비 1% 저감
3 지역사회 환경 영향 최소화	분진밀폐 관리시스템 구축 폐수처리 담체 교체공사 오염토양 자발적 복원	환경영향 모니터링 강화	오염물질 법규 대비 40% 이내 배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지역사회 환경 개선 협의회 운영	이해관계자 영향도 분석	이해관계자 관계도 구축
4 위험요인 관리 강화	159개 직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 자체인증	I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작업장 내 이동식 CCTV 구축
안전보건 관리 강화	유해작업환경 30% 개선 의료진 현장 순회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실시 (고용노동부 평가 A등급 획득)	유해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지속 협력사 EHS 관리 강화	재해율 전년 대비 30% 저감 고용노동부 평가 A등급 유지
임직원 건강 관리 강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 2개소 오픈

KEY PERFORMANCE INDICATOR



1. 통합 EHS 경영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있는 EHS 경영 실천은 총괄 CEO가 직접 관리하는 핵심 이슈로, EHS기획팀을 중심으로 하는 전사 EHS 담당조직과 전문인력이 전 세계 사업장에서 EHS 경영을 시행합니다. 2013년에는 친환경 사업장 조성 노력을 인정 받아 창원시 녹색기업 실천운동 우수상, 새만금 지방환경청장상, 환경보호 유공자,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통합경영체계 구축

EHS 경영을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DSRS* 평가기준에 따라 EHS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공장을 포함한 한국의 4개 사업장은 근로자 스스로가 작업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등 근로자와 협력사의 EHS 의식이 모범적인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6개 사업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Proactive 수준으로, EHS에 대한 경영층의 관심이 높고 EHS 전문조직에서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한국과 중국, 유럽 사업장뿐 아니라, 북미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DSRS(Doosan EHS Rating System): 개별 사업장의 EHS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두산그룹 고유의 EHS 평가시스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EHS 인력의 역량 강화: EHS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3년에 FC(Functional Competency: 직무 역량) 체계를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EHS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개인 및 팀 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EHS 교육을 EHS 아카데미의 전문 교육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EHS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사 EHS 인력의 역량 향상,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2011년부터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사 EHS 세미나를 반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013년 통합 EHS IT시스템을 구축하여 EHS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했으며, 세계 각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HS IT시스템은 총 31개 업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24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크게 EHS 경영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소방관리, 보건관리, 온실가스관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EHS 관리자가 사용하는 ERP 기반 시스템과 현업 담당자가 사용하는 웹 EHS 포털,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EHS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실시간 정보 교환과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통합 IT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의 집계 및 분석 시간이 단축되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져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HS 자체평가

	한국	중국	유럽	북미
점수(단위: 점)	75.4	58.6	58.6	2014 시행 예정
등급	Regenerative	Proactive	Proactive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FC(Functional Competency):
직무 전문가 육성
46p

2.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두산인프라코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 운영의 특성 상 직접 에너지원의 사용량보다 간접 에너지원의 사용량이 월등하게 높지만, 2004년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제 3자 검증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

한국 내 사업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해당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및 사업부문 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해 법규 상의 배출허용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2013년에는 전사 에너지 절감 TFT를 구성하여 사업부문별로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3개 생산법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리 범위를 출장자나 통근버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원(Scope 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공장 및 생산라인 별 에너지 사용량(전기, LNG 등)이 계량기를 통해 계속되며, 계속된 값은 통합 EHS IT시스템의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통합 EHS IT시스템 내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환, 분석, 보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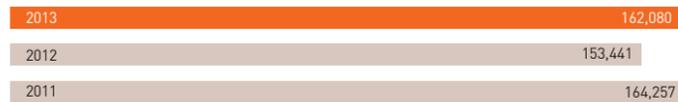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의 온실가스 배출은 조립공정 특성 상 구매전력에 의한 간접배출이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며, 난방과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LNG와 제품 시운전 및 이동차량에 소요되는 경유와 휘발유에 의한 배출 등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인천공장이 한국 내 전체 사업장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창원공장과 군산공장은 서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2013년 배출허용량은 174,846 tCO₂e이지만, 지역 및 사업부문 별로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수행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실제 배출량은 162,080 tCO₂e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원 효율성 제고

인천공장의 경우, 압축공기 응축수 배출량이 많아 상시적으로 밸브를 열어놓았던 것을 응축수 밸브 자동 개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배관 공사와 자동트랩 설치를 통해 연간 총 1억 4,784만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창원공장은 보일러에서 방출되는 고온(110℃)의 배기가스에 급수배관을 설치하여 온수로 재생하는 폐열 회수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재생된 온수를 현장에 공급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 당 약 66,000 Kcal, 금액으로는 연간 약 1,916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창원공장 공장동의 잠열 손실 감소와 보온효과 상승을 위해 노후된 천장재를 단열효과가 뛰어난 방수재로 교체하는 보온 및 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방수층 보완에 따라 온도 보정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단열계수 상승으로 평균 온도가 약 3℃ 상승함에 따라 연간 약 4,320만 원의 연료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₂e)



162,080

2013년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

CSR 성과표

100p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가꾸다(인천공장, 창원공장)

48p

3. 환경 오염물질 및 지역사회 환경 영향성 관리
 두산인프라코어는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배출물질 저감활동을 추진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원사용량 및 배출물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수치정보는 CSR 성과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 오염물질 관리

악취 및 대기 오염물질 관리: 주물공장 악취 저감에 대한 한국 내 기술력과 적용사례가 부족하여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선진공장의 악취 저감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와 암모니아, 황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섞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발생 물질별로 공정 단계에서부터 개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악취 처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 고효율 설비 투자로 오염물질 배출공정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내 기준은 법적 기준치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일부 공정의 폐쇄 또는 이전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 총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유류): 인천공장은 유류 누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노후 유류배관을 교체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매립배관의 지상화 및 이중배관 설치를 통해 유류 누출사고 시 대응시스템이 신속히 가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해 자격 취득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법적 선임자를 8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여 인적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점검내용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사 통합 관리시스템에 취합됩니다.

위험물질 관리(가스): 가스 누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용기와 차단기를 교체하는 등 설비 개선을 완료하였고, 공장 내 불용 또는 유류 가스설비를 철거하여 위험성을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가스 취급자 교육과 법정자격자 선임을 통해 인적 점검 관리를 강화하였고, 가스안전관리 세척 변경으로 가스설비 설치 및 운영안전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영향 최소화

비산먼지 관리: 여과집진기에 모아진 분진을 이송하는 과정과 폐주물사를 보관 및 이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일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지게차 이송 방법 대신 밀폐배관을 통한 공기분사 방식으로 분진을 이송 또는 수거하는 분진밀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폐주물사 보관장을 밀폐구조로 변경하고 상옥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장 내 차량 이동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고자 자동 세륜세차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발생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속적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밀폐 관리시스템을 주요 공정 전체로 확대하고, 자동측정센서를 활용해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 농도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비산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수 관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녹조 및 적조 현상과 관련하여 수중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질소(T-N)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린센터 SOD조 담체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오폐수 외부 유출 등의 환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해성이 높은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을 관리하고자 정기적으로 25개 배출물질에 대한 전 항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배출수의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법규 대비 40% 이하로 설정해 준수합니다.

토양 관리: 인천공장은 2009년부터 2년간 사업장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도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된 토양 범위를 식별하였고,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토양오염 복원공사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복원공사를 통해 1차 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청정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고자 관리감독과 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주물공장의 일부 공정을 이전하고 엔진공장의 우수로를 이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석면재를 교체하였고, 주물공장의 악취와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지붕 및 벽체 창문을 밀폐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2013년 환경 이슈로 야기된 민원 건 수는 2012년 65건에 비해 70% 저감된 19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광주 사업장에서 수질 변경에 따른 배출물질 변경신고가 미흡해 과태료가 부과된 환경기준 미준수 사항이 1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 위반이나 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4. 임직원 안전보건 리스크 예방과 관리
 두산인프라코어는 기계설비 운영 및 작업환경과 관련해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개선하고 있으며, EHS 활동을 관리자 중심에서 작업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 관리 강화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을 작업자 중심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의 원년으로 삼고,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식 위험 발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59개 직이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 인증을 획득하였고,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주요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보건 교육자료 등을 제작하여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습니다.

2013년 재해사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재해원인 분석 결과 업무상 재해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하였고 운동 중 상해와 사무실 이동 중 단순 상해 등 업무 외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조하는 한편, 관리자 중심에서 작업자 중심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 위험요인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율을 저감하는 동시에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 내재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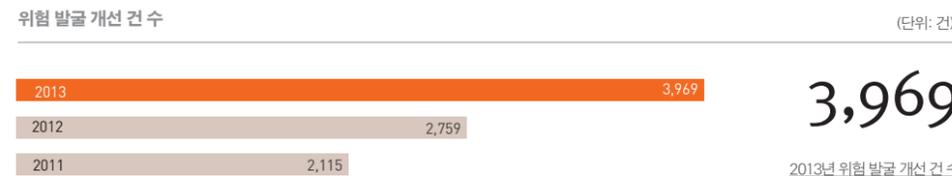
EHS 포상 실시: EHS 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안전행동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EHS 포상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2013년 1월과 7월에 생산조직의 최소 단위인 '직'별 무재해 포상을 실시하였고, 5월의 직별 활동 Best of Best 공우대회, 11월의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 경진대회를 통하여 EHS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의거 매 3년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체부담작업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기조사 시 확인된 신체부담작업 44건은 원인을 파악하여 모두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EHS 담당자와 노동조합, 현장관리자, 생산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근골격실행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강화
작업장 건강 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의거 공장 내 유해작업공정(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출 기준을 초과한 공정에 대해서 저소음 전자장비 교체, 국소배기장치 설치, 발생원 밀폐 등의 개선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으로 2013년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공정을 2010년 대비 30% 개선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부속의원 의료진 2명이 매월 1회 인천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임직원의 건강상담, 응급진료, 구급함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여름철 탈수 예방을 위해 소금과 비타민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과 사기를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력사 EHS 공생협력: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협력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위험작업 및 유해환경 개선, 헬스 프로그램 운영,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무재해 운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보건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고, 인천공장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3년 제조업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임직원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활동			
	2011	2012	2013
위험 발굴 개선 건 수(건)	2,115	2,759	3,969
재해율(%)	0.44	0.28	0.39



3,969
 2013년 위험발굴 개선 건 수

종합 임직원 안전보건건강 관리체계 구축: 해외 주재원이나 출장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전문 기업인 International SOS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외 종합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이라면 본국이 아닌 파견국 또는 출장국에서도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부터 전염병과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구호와 여행 보안정보까지 다양한 안전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전 세계 사업장 소속의 모든 해외 출장자를 포함하여 약 2,800여 명에게 종합 안전보건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실제 11건의 의료보안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진 방문, 전자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부터는 전사 가이드라인의 배포, 모바일 서비스 등을 기획하여 보다 쉽고 다양하게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직원 건강 관리 강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부터 임직원 종합검진 실시 대상자를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해 4개월마다 추적검사를 진행하고, 등급에 따라 초과근무나 야근을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하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이 같은 건강관리 강화에 따라 2011년 이후 고위험 질병자 38명을 조기 발견하여 현재 26명이 완치(완치율 68%)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인천공장이 2013년 8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위험 질병자 조기 발견 및 완치 (단위: 명)			
	2011	2012	2013
발견	21	8	9
완치	16	4	6

두산인프라코어의 앞선 안전보건 관리 능력

두산인프라코어는 생산현장뿐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와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장에도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적용해 매해 활동내용을 평가합니다. 적극적인 안전보건 관리 활동으로 2013년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증진 활동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고, 1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인천공장은 2013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 소방의날 표창에서 소방방재청장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군산공장은 2013년도 우수소방대상을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중국의 DICCC는 국가안전생산표준화 1급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2007년부터 주기적으로 운영해 왔던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2014년부터 사내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주 직원이 1,000명 이상인 인천, 창원공장에 사내 상담실을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 내 전문기관을 활용해 상담치료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염코너 운영: 직원의 고혈압, 비만 등 성인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사내식당에 나트륨 함유량이 25% 이상 감소된 저염식 코너를 도입했습니다. 인천공장의 경우,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저염식 코너를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저염 코너 신메뉴 개발, 식기류 교체, 저염식 장점 홍보 등을 통해 저염 코너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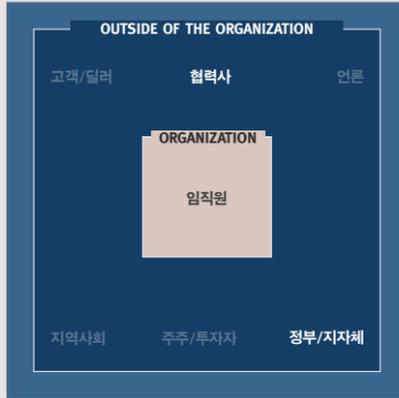
임직원 및 가족 예방접종 지원: 보건관리 취약국가로의 출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출장 전 사내규정 6개 항목(황열, 콜레라, 말라리아, 장티프스, A형 간염, 파상풍)에 대하여 국가별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수인성 전염병인 A형 간염 항목에 대하여 전 임직원이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직원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절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입사원, 계약직을 포함하여 한국 내 근무하는 전체 임직원과 가족 중 희망자입니다.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MUTUAL GROWTH THROUGH WIN-WIN COOPERATION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고유의 기술과 품질, 경영체계를 접목해 협력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생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M : Material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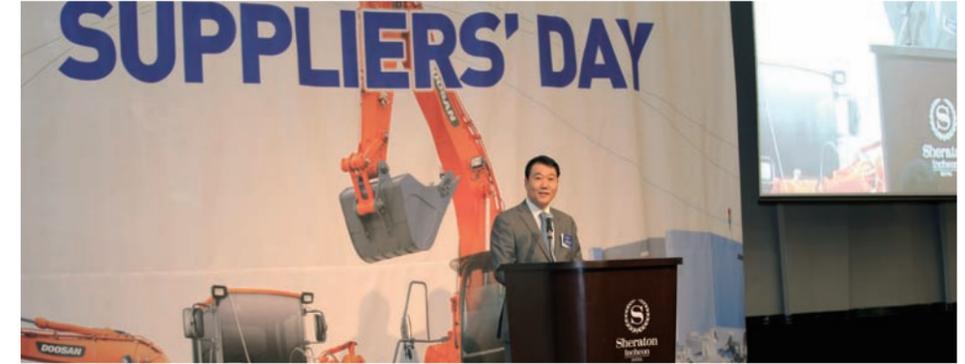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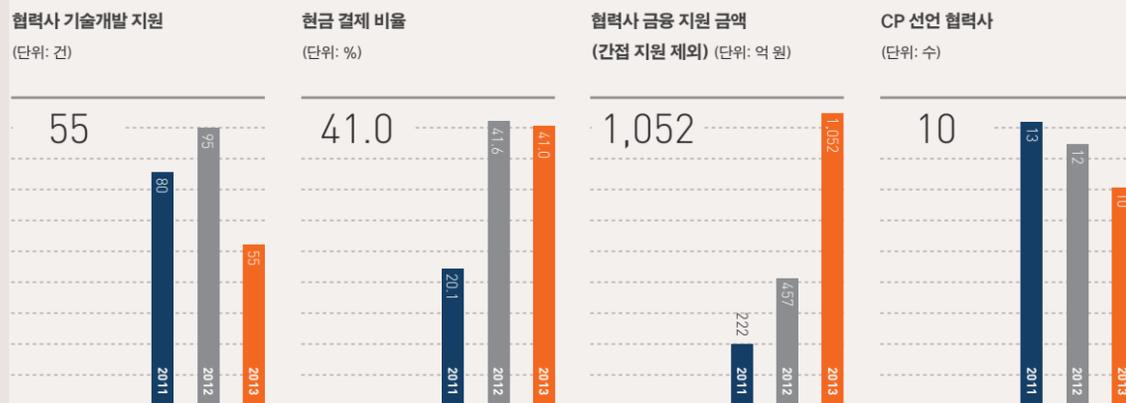
KEY ISSUE

- 1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 2 협력사 경쟁력 강화
- 3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지원

PERFORMANCE CHART

GOAL	2013 PERFORMANCE	2014 PLAN	2014 TARGET
1 동반성장 문화 구축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판정	2차 협력사 동반성장 확대	2차 협력사 성과공유제 도입
	동반성장 우수 기업 선정 성과공유제 실시		2차 협력사 SCM 확대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강화	Suppliers' Day, 동반성장의 날 실시 CEO 협력사 방문 5회	협력사 의견청취 채널 강화	Suppliers' Day, 동반성장의 날 개최
2 협력사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부품 국산화 개발 8건	협력사 자체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부품 국산화 개발 12건
	신기종 공동 개발 40건 OEM 및 모듈 지원 7건		신기종 공동 개발 30건
재무 지원 확대	대금지급 월 3회, 현금 결제 비율 41%	대금지급 현금비율 개선	현금 결제 비율 60% 달성
	직접 지원 15억 원 융합 지원 1,030억 원/ 기타 지원 7억 원	재무 지원 지속	직접 지원금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시회 동반 참여 6회	전시회 동반 참여 확대	전시회 동반 참여 3회 이상
3 윤리경영 강화	10개사 CP 선언	CP, 윤리경영 확산	7개 이상 협력사 CP 추가 선언
	협력사 운영 지원, 하도급법 교육 8회/42개사 /48명	협력사 운영 지원 확대	기술 교육 및 차세대 경영자 교육 실시
협력사 임직원 보호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95개 협력사 건강검진 지원	협력사 임직원 권리 및 안전 보호	신규 계약 시 근로계약 의무화 건강검진 2차 협력사 확대

KEY PERFORMANCE INDICATOR



1.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미래시장 개척 등을 지원해 협력사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생산 및 공급 과정 전반의 시스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실질적 개선을 지원하는 그간의 활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실적평가'에서 최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2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협력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개선된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반성장 문화 구축

두산인프라코어는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운영하여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동반성장과 관련이 있는 임원의 MBO(Management By Objective) 평가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동반성장 활동 성과를 다음 해 구매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협력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그룹에서는 계열사의 동반성장 이행을 위해 매년 평가해 우수 계열사 CEO 및 담당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 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공유제 매뉴얼에 자동차·조선·기계 부문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2013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과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성과공유제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여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에 한층 매진할 계획입니다.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 협력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CEO와 사업부문장이 지속적으로 협력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Suppliers' Day와 동반성장의 날 등을 개최하여 협력사와 연간 사업계획과 동반성장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활동을 통해 품질과 원가, 생산성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협력사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Suppliers' Day에서는 161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했으며, 동반성장의 날 행사에서는 3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고 10개 협력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선진 수준의 협력사를 'Leading Supplier'로 선정해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협약식과 간담회, 워크샵, 사례 공유회 등을 통해 동반성장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활동

	2012	2013
Suppliers' Day	171개 협력사 참석	161개 협력사 참석
동반성장의 날	155개 협력사 175명 참석	121개 협력사 158명 참석
CEO 협력사 방문	6회	5회

협력사 의견 수렴 및 경영 활동 반영 프로세스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2. 협력사 경쟁력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의 재고 및 납품 관리체계 개선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협력사 납기 준수율과 품질 수준을 제고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적 원-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단: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의 재고와 납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내 전문가와 기술고문으로 구성된 50여 명의 전담인력이 6개월에서 12개월간 협력사를 방문해 지도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용접, 소재가공, 비파괴검사 등의 핵심기술 지원 활동과 3정6S, Lean, DTC, Single PPM*, 품질지도 및 문제해결 등의 혁신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2015년 말까지 부품 품질을 2013년 대비 6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3정6S: 3정(정위치, 정품, 정량) 6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안전) 활동
* Lean: 재고를 최소화하고 작업공정을 혁신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
* DTC(Design To Cost): 설계 혁신
* Single PPM(Parts Per Million): 제품 100만 개 당 발생 불량품을 10개 미만으로 줄이자는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혁신운동

기술개발과 품질 개선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R&D에 투자하기 어려운 협력사를 위해 정부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가 정부 지원금 대비 367배에 해당하는 매출 효과를 거둔 성공사례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정불량 유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부품품질 혁신 330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3개월간 30% 개선을 목표로 75개 협력사를 집중 지원한 결과, 인천공장의 공정진행 불량률이 2012년 대비 61% 개선되었습니다.

협력사 교육 지원: 2013년에 FTA 현장 방문교육을 비롯해 57개 과정의 사내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협력사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취업인력에 대한 위탁교육을 진행하여 가공, 조립, 전기 및 전자 분야 인력 채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무 지원 확대

재무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혼합 지원, 특별 지원의 4가지 방향으로 협력사에 대한 재무 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혼합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예치금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 저리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 특별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03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약 15억 원을 설비투자 자금 등으로 지원했으며, 네트워크론과 패밀리기업 대출, 기계산업동반성장 진흥재단 출연 등을 통해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의 재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결제대금을 월 3회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 결제 비율을 41%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별 운영 성과

	과정 수(개)	참여 협력사(개)	교육 인원(명)
대학 연계 교육	21	378	469
정부/타기관 연계 교육	11	284	1,674
자체 교육(품질, FTA 등)	17	526	714
협력사 경영자 교육	6	411	417
채용예정자 교육	2	9	16
합계	57	1,608	3,290

협력사 차세대 경영자 교육과정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 협력사 차세대 경영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오랜 거래관계를 맺고있는 협력사들의 2세대 경영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세대와의 동반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2년까지 실시해 온 협력사 대표이사 리더십 교육과 임직원 직무교육에서 발전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의 차세대 경영자 교육에는 협력사 차세대 경영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들이 참여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전략방향과 회사를 경영하는 통찰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더욱 심화된 커리큘럼을 마련해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작기계 무이자 할부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작기계 구입 시 최대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는 등 협력사의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지원 대상을 2, 3차 협력사뿐 아니라, 두산그룹 계열사의 협력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공작기계 무이자 할부 지원으로 협력사들은 사별 평균 연 7,200만 원(연리 6% 기준) 상당의 이자를 절감하고 초기 개선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3년 협력사 재무 지원 현황

직접 지원	설비투자 자금	3개 협력사 15억 원
혼합 지원	동반성장 특별펀드	1,030억 원 조성
특별 지원	기계재단	4억 원
	산업혁신	3억 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력은 뛰어나나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아 운전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협력사에 대해 금융 지원을 통해 현지 적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현지화 대출로 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동반 참가 및 글로벌 벤치마킹 지원: 협력사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부품 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산업대전에 6개 협력사와 동반 참가했을 뿐 아니라, 각종 전시회에 참가해 협력사와 공동 부스를 마련하고 전시장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협력사들의 기술력과 제품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기업 시찰단 참여 대상을 2차 협력사로 확대하여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3.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지원

윤리경영, 공정거래, 인권, 환경, 사회문제 등과 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협력사의 규모와 인프라 여건 상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가치들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자발적인 운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윤리경영 강화

협력사 참여형 CP 운영: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하도급법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0개 협력사가 CP 도입을 선언하였으며, 2012년 1월 체결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와 협약을 맺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와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 등 수출입 관련 규제 교육과 CP 교육을 실시하여 하도급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공정거래 문화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신고제도 운영: 협력사에 대한 윤리경영의 확산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에 임직원 및 협력사의 부당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감사팀을 구축하는 등 내부신고제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임직원과 협력사의 비리 제보 및 문의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와 협력사 핫라인(온라인, 전용전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1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제보는 100% 처리 및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협력사에게 최초 계약등록 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윤리경영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보호

협력사 인권 존중: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협력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주요 협력사들이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건강 관리 지원: 협력사 임직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사내 협력사 CEO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개인질병 맞춤형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95개 협력사 180명의 임직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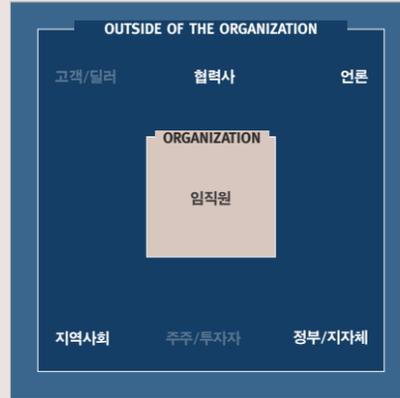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SOCIAL CONTRIBUTION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사회공헌 추진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의 성장 지원, 임직원 참여와 진정성을 전제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M : Material Issue

KEY ISSUE

1

사회공헌 전략

2

사내 사회공헌 문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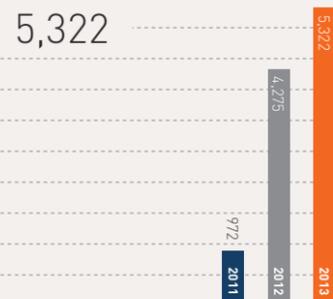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M**

PERFORMANCE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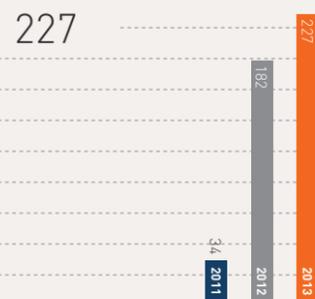
GOAL	2013 PERFORMANCE	2014 PLAN	2014 TARGET
1 사회공헌 전략모델 수립	37기 중점 추진분야 선정 및 실행	사회공헌 포트폴리오 재구성 글로벌 시너지 플랜 수립	업과 연계된 신규 프로그램 수립 해외 사업장용 사회공헌 가이드라인 제정
2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자율적 봉사활동 활성화 사회공헌 참여 기회 확대	사회공헌 뉴스레터 발간 및 시스템 개편 봉사동아리, 노사공동 봉사단, 협력회 봉사단 활동 신입·경력 교육과정 내 사회공헌 의무화	사회공헌 만족도 조사 동아리 및 자율 봉사모임 지원 확대	한국 내 사업장 만족도 조사 실시 동아리 지원 범위 확대
3 사업장별 사회공헌 실행력 강화	사업장별 7회 이상 사회공헌 실시	신입사원 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 임직원 기금 활용 프로그램 발굴 및 진행	연 2회 신입사원 봉사활동 실시 기금 사업 개발 실무자 워크숍 2회 실시
		지역 사회공헌 실무자 역량 강화	

KEY PERFORMANCE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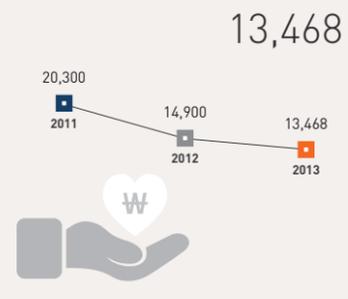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단위: 명)



급여 결산 및 구좌제 모금액
(단위: 백만 원)



사회공헌 투자금액
(단위: 백만 원)



1. 사회공헌 전략

두산인프라코어는 사회공헌을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해온 '드림스쿨'은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장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년 내에 글로벌 사회공헌 전략 모델과 시스템을 갖춰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공헌 전략모델 수립

두산인프라코어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전략모델을 수립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발굴 구축하는 한편,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의 진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의 성장 지원, 업과의 연계 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성장 지원을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해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워크포탈 내에 사회공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제도와 근태제도, 봉사동아리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임직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두산그룹의 사회공헌 방향성에 맞춰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과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사회공헌 포트폴리오를 대폭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 기회와 다양한 문화 체험 제공, 자신만의 미래 목표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쿨: 드림스쿨은 '사람의 미래는 꿈을 가지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컨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드림스쿨은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꿈찾기 프로젝트'로 자기역량 강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미래와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3년 2기 드림스쿨은 전국 4개 지역(서울, 인천, 창원, 군산)에서 선발된 115명의 학생이 멘토로 참여하였으며, 동수

의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꿈찾기 과정의 조연이자 지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드림스쿨 참가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는 총 5회의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세 등을 배우고, 임직원 멘토와 함께 드림캠프와 직업 체험, 직업인 인터뷰, 학교 탐방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막연하기만 했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드림스쿨 1기 수료자들도 2013년 한 해 동안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자의 꿈을 보다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사업장 소재 지역의 드림스타트 소속 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활동합니다.

중국 희망소학교: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은 '중국의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함께 한다(共建美好中國)'는 슬로건 아래 직업기술 훈련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온난공정' 사업과 중국 내 저개발지역에 소학교를 설립하는 '희망공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 빈곤지역에 모두 1,025만 위안(약 17억 9,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모두 34개의 희망소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다
(중국 및 신흥시장 미래세대 교육)
50p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업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기계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학적 역량을 활용한 지식 활동과 제품의 특성을 활용한 지원 활동 등 업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센터나 제품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재해 복구 지원: 2013년 4월, 진도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에 외지기업 중 유일하게 지진피해 초동 대응을 위해 굴삭기를 급파했습니다. 지진 발생 3시간 후 굴삭기 두 대와 4명의 서비스 인원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단을 현장에 투입해 균용트럭을 비롯한 구조팀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08년의 쓰촨성 지진과 2010년의 칭하이성 지진 등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 사태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미국, 아이티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에 최우선으로 건설장비와 구호금을 지원하는 등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니어 공학교실: 주니어 공학교실은 이공계 출신이 대부분인 기술원 연구원들의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과학키트를 조립하며 쉽고 재미있게 과학원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소아 환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장비 기증: 사내 테스트용 엔진을 각 지역의 대학에 조립분해용 기자재로 기증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과학체험관에 공작기계 대표 제품인 차세대 복합가공기 SMX의 mock-up(1대)을 2014년 상반기 중에 전시용으로 기증할 예정입니다. mock-up은 제품 개발단계에 실물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는 모형으로 본 제품의 1/5 크기입니다.

지역사회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 내 5개 사업장과 해외 각 지사에서 환경정화, 1사 1촌, 지역 주민행사 지원, 건설공사 지원 등의 지역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Operation본부 봉사동아리 'CElper': Operation본부 인천공장 소속 현장관리자 89명으로 이루어진 'CElper' 봉사동아리는 인천공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하여 인근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르기: 인천공장과 군산공장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탄 나눔 행사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사업부 봉사동아리 '나누미': 공작기계 사업부 서울사무소 봉사동아리 '나누미'는 아동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학습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피자 만들기 요리체험스쿨, 오카리나 포크아트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과 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하고, 환경미화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랑의 구급상자 만들기: 2013년 상반기에 열린 'Dream Community Day' 행사에서는 서울과 인천, 군산, 창원 등 한국 내 4개 사업장 225명의 임직원들이 사업장별로 모여 1,300여 개의 '사랑의 구급상자'를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여한 임직원들은 세 가지 천연 약품을 일정 비율로 섞어,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모기퇴치제를 직접 만들고 구급상자를 제작했습니다. 구급상자에는 천연 모기퇴치제를 비롯하여 10여 종의 가정용 상비약이 담겼으며, 전국의 임직원들이 미리 쓴 응원 편지 1,300여 통을 함께 포장해 전했습니다.

2013년 추진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한국)

활동 유형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업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	지역사회 지원
활동 횟수(회)	75	8	137
활동 시간(시간)	466	30	450
참여 임직원(명)	1,532	55	3,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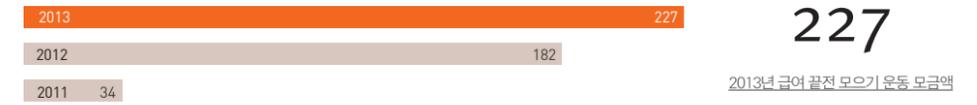
2. 사내 사회공헌 문화

두산인프라코어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봉사 활동 이 외에도 임직원 개인과 다양한 봉사동아리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사업부문 별 봉사동아리는 물론, 노사 공동 사회공헌단과 협력사를 포함한 사회공헌단도 활동 중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회공헌 활동 현황과 각종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자 사내 뉴스레터인 드림뉴스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보와 사내 워크포탈을 통해 전 세계 사업장의 사회공헌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급여 결제 모으기 운동 모금액(매칭그랜트 제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두산인프라코어의 글로벌 사업장은 현지 학교 건립, 긴급 구호 활동 지원, 지역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모금 및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 2009년 처음 조직된 DICC 자원봉사단은 식수 개선과 하천 정화, 소외이웃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엔타이시에서 3번째로 '10대 우수봉사단' 칭호를 얻었으며, 2013년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 기업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DICC는 설립 이후 희망사학교 건설, 불우이웃 돕기,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미 - 밥캣은 지역사회의 교육, 소득 안정, 건강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America)'와 협력하고 있으며, 2013년에 비즈마크 지역의 'Top 20 Contributor Award'를 수상했습니다. 비즈마크 사업장 직원들은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기금을 모으는 자전거 경주대회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바이크 레이스'에 8년 연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열린 17회 대회에는 두 팀이 참가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그 밖에도 비즈마크, 파고, 그위너, 와페턴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 지역기업으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회사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사업장별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Company Visiting Day'와 직업설명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CSR 실천의지를 담은 'Be a Doo-er!'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밥캣 노스다코다주 오픈 골프대회 후원) 52p

체계적인 기술 교육으로 자립을 돕다 (개발도상국 기술교육 제공) 51p

56 CSR체계 및 경영 일반
66 고객 가치 증진과 품질 경쟁력 제고
72 임직원 가치 증진

78 통합 EHS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84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88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지원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 인천공정에서는 노사 공동 사회공헌단인 '희망드림단'을 창설하여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함께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시작으로 어린이 날 기념 행사, 구급상자 제작, 지역 내 소외이웃 초청 행사, 김장나눔 등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협력사 동반 사회공헌 활동: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시된 '4색 희망상자 프로젝트'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북한이주민 등 4대 취약 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품으로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 지역 670세대에 맞춤형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공헌 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협력사 대표들로 구성된 '사랑나눔단' 등 협력사 봉사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함께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참여 기회 확대
두산 Way의 핵심가치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신입 및 경력 사원 입문 교육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 두산의 사회공헌 방향성, 주요 활동과 참여 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공헌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립기념일(6월 4일) 직전 영업일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드림 커뮤니티 데이'로 지정해 한국의 4개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업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며, 지역사회는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두산인프라코어의 믿음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역시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활동으로 발전시켜 장기적인 상생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사회공헌 실행력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자 사업장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사회공헌은 임직원 기금과 공동모금회 기탁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도록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 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기관, 지역 복지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APPENDIX

94p. 재무제표 98p. 외부 감사인 감사보고서 99p.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100p. CSR 성과표 103p. 제 3자 검증보고서 105p.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단위: 명)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14기: 2013.12.31 현재 / 제13기: 2012.12.31 현재 (단위: 원)

과목	제14기	제13기
자산		
유동자산	3,706,205,672,474	3,861,994,577,716
현금및현금성자산	287,837,894,710	462,494,292,429
단기금융상품	476,689,896,477	222,294,825,630
단기투자증권	10,615,626	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32,548,957,307	1,309,109,422,991
파생상품자산	42,058,214,557	73,437,207,075
재고자산	1,489,497,127,395	1,662,008,926,258
매각예정자산	440,866,076	2,645,196,457
기타유동자산	77,122,100,326	130,004,706,876
비유동자산	7,775,287,867,964	7,682,995,884,101
장기금융상품	2,011,500,000	2,011,500,000
장기투자증권	9,187,861,752	9,244,959,75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3,509,019,686	8,374,860,523
비유동파생상품자산	1,776,066,413	4,525,583,392
유형자산	2,256,581,320,986	2,023,666,222,683
무형자산	4,739,850,232,360	4,754,639,097,102
투자부동산	28,306,350,354	27,871,356,39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54,127,200,055	145,002,625,289
이연법인세자산	463,420,422,875	589,291,669,281
기타비유동자산	116,517,893,483	118,368,009,684
자산총계	11,481,493,540,438	11,544,990,461,817
부채		
유동부채	2,753,667,942,752	3,539,078,481,83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119,257,063,688	1,067,423,350,749
단기차입금	730,370,021,070	1,325,079,857,757
유동성사채	426,872,492,128	469,592,187,972
유동성장기차입금	84,927,848,154	270,380,842,054
당기법인세부채	33,732,288,923	31,856,682,031
파생상품부채	1,111,137,066	831,659,485
충당부채	148,532,912,250	146,441,019,324
기타유동부채	208,864,179,473	227,472,882,460
비유동부채	5,178,805,345,405	4,997,112,665,932
기타비유동채무	20,695,021,176	27,504,331,079
사채	1,764,755,744,200	1,585,861,248,159
장기차입금	2,637,741,509,672	2,508,227,472,114
순확정급여부채	564,414,857,221	753,810,600,998
비유동파생상품부채	0	7,707,578
이연법인세부채	8,002,730,726	3,561,696,033
비유동충당부채	5,549,688,773	7,370,145,747
기타비유동부채	177,645,793,637	110,769,464,224
부채총계	7,932,473,288,157	8,536,191,147,764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986,855,517,363	2,457,226,134,087
자본금	1,037,276,570,000	843,290,170,000
자본잉여금	237,381,189,581	14,254,797,512
신종자본증권	508,259,603,649	508,259,603,649
기타자본항목	(26,387,480,016)	(30,403,879,8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127,632,799)	(177,960,866,635)
이익잉여금	1,313,453,266,948	1,299,786,309,414
비지배지분	562,164,734,918	551,573,179,966
자본총계	3,549,020,252,281	3,008,799,314,053
부채와 자본총계	11,481,493,540,438	11,544,990,461,817

연결손익계산서

제14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 제13기: 2012.01.01부터 2012.12.31까지 (단위: 원)

과목	제14기	제13기
매출액	7,736,830,293,865	8,158,350,959,705
매출원가	6,089,337,802,977	6,478,129,915,411
매출총이익	1,647,492,490,888	1,680,221,044,294
판매비와관리비	1,277,992,100,880	1,317,803,816,096
영업이익(손실)	369,500,390,008	362,417,228,198
금융수익	173,794,728,373	249,570,319,161
금융비용	532,454,814,457	570,352,372,508
기타영업외수익	28,786,137,744	35,901,618,689
기타영업외비용	69,556,686,922	82,007,652,363
지분법적용투자이익(손실)	(8,014,965,285)	(18,393,850,149)
지분법적용투자자산처분이익(손실)	0	704,719,182
종속회사투자처분이익	0	0
지분법적용투자자산손상차손	(19,018,488,883)	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56,963,699,422)	(22,159,989,790)
법인세수익(비용)	(43,986,238,851)	415,502,546,441
계속사업이익(손실)	(100,949,938,273)	393,342,556,651
중단사업이익(손실)	0	0
당기순이익(손실)	(100,949,938,273)	393,342,556,65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1,756,286,055)	340,338,846,265
비지배 지분	806,347,782	53,003,710,386
주당손익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손실)	(596)	2,018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손실)	(596)	2,018
기본주당순이익(손실)	(596)	2,018
희석주당순이익(손실)	(596)	2,018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14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 제13기: 2012.01.01부터 2012.12.31까지 (단위: 원)

과목	제14기	제13기
당기순이익(손실)	(100,949,938,273)	393,342,556,65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308,303,135,286	(841,308,86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2,313,920,280	(841,308,862)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165,989,215,006	0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69,441,653,532)	(178,730,584,23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3,922,052)	(61,673,396)
(부의)지분법자본변동	(720,654,126)	(1,195,628,629)
해외사업환산손익	(48,571,548,795)	(267,579,682,46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20,125,528,559)	90,106,400,250
당기총포괄이익	137,911,543,481	213,770,663,551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122,039,587,370	201,297,149,529
비지배지분	15,871,956,111	12,473,514,022

연결 자본변동표

제14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 제13기: 2012.01.01부터 2012.12.31까지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지분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2012.01.01 (기초자본)	842,779,420,000	8,288,339,555	0	94,339,619,629	(42,494,821,600)	942,153,278,515	440,136,192,649	2,285,201,028,748
회계정책변경효과	0	0	0	0	0	20,869,836,335	3,067,995,051	23,937,831,386
수정후자본	842,779,420,000	8,288,339,555	0	94,339,619,629	(42,494,821,600)	963,023,114,850	443,203,187,700	2,309,138,860,134
자본의 변동								
연결 당기순이익	0	0	0	0	0	340,338,846,265	53,003,710,386	393,342,556,65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3,575,651,701)	2,734,342,839	(841,308,862)
유형자산 재평가 및 처분	0	0	0	0	0	0	0	0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0	0	0	0	(61,673,396)	0	0	(61,673,396)
(부의) 자본법자본변동	0	0	0	0	(1,195,628,629)	0	0	(1,195,628,629)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0	(224,315,143,260)	0	(43,264,539,203)	(267,579,682,46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0	90,106,400,250	0	0	90,106,400,250
유상증자	0	0	0	0	0	0	0	0
주식선택권 행사 및 소멸	510,750,000	5,966,457,957	0	(4,934,464,091)	0	0	0	1,542,743,866
주식기준 보상비용	0	0	0	3,446,189,499	0	0	0	3,446,189,499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508,259,603,649	0	0	0	0	508,259,603,649
전환우선주 전환	0	0	0	(94,499,680,439)	0	0	94,499,680,439	0
연결회사 간 지분거래	0	0	0	0	0	0	0	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0	0	0	(215,750,926)	0	0	215,750,926	0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일부 처분	0	0	0	0	0	0	0	0
연결실체간 사업양수도	0	0	0	(1,181,046,879)	0	0	1,181,046,879	0
연결실체간 지분양수도	0	0	0	0	0	0	0	0
회계변동의 당기효과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27,358,746,646)	0	0	0	(27,358,746,646)
2012.12.31 (기말자본)	843,290,170,000	14,254,797,512	508,259,603,649	(30,403,879,853)	(177,960,866,635)	1,299,786,309,414	551,573,179,966	3,008,799,314,053
2013.01.01 (기초자본)	843,290,170,000	14,254,797,512	508,259,603,649	(30,403,879,853)	(177,960,866,635)	1,299,786,309,414	551,573,179,966	3,008,799,314,053
회계정책변경효과	0	0	0	0	0	0	0	0
수정후자본	843,290,170,000	14,254,797,512	508,259,603,649	(30,403,879,853)	(177,960,866,635)	1,299,786,309,414	551,573,179,966	3,008,799,314,053
자본의 변동								
연결 당기순이익	0	0	0	0	0	(101,756,286,055)	806,347,782	(100,949,938,27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128,656,116,582	13,657,803,698	142,313,920,280
유형자산 재평가 및 처분	0	0	0	0	164,526,295,394	306,523,007	1,156,396,605	165,989,215,006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0	0	0	0	(23,922,052)	0	0	(23,922,052)
(부의) 자본법자본변동	0	0	0	0	(720,654,126)	0	0	(720,654,126)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0	(48,822,966,821)	0	251,408,026	(48,571,548,795)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0	(20,125,528,559)	0	0	(20,125,528,559)
유상증자	193,986,400,000	219,628,416,169	0	0	0	0	0	413,614,816,169
주식선택권 행사 및 소멸	0	3,497,975,900	0	(3,497,975,900)	0	0	0	0
주식기준 보상비용	0	0	0	2,233,974,578	0	0	0	2,233,974,578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0	0	0	0	0	0
전환우선주 전환	0	0	0	0	0	0	0	0
연결회사 간 지분거래	0	0	0	0	0	0	0	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0	0	0	(2,448,078,041)	0	0	2,448,078,041	0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일부 처분	0	0	0	0	0	0	0	0
연결실체간 사업양수도	0	0	0	7,728,479,200	0	0	(7,728,479,200)	0
연결실체간 지분양수도	0	0	0	0	0	0	0	0
회계변동의 당기효과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0	0	0	0	0	(13,539,396,000)	0	(13,539,396,000)
기타	0	0	0	0	0	0	0	0
2013.12.31 (기말자본)	1,037,276,570,000	237,381,189,581	508,259,603,649	(26,387,480,016)	(83,127,632,799)	1,313,453,266,948	562,164,734,918	3,549,020,252,281

연결 현금흐름표

제14기: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 제13기: 2012.01.01부터 2012.12.31까지 (단위: 원)

과목	제14기	제13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1,934,725,495	(450,365,234,755)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760,438,890,834	438,409,211,826
연결당기순이익(손실)	(100,949,938,273)	393,342,556,651
조정	737,408,867,508	245,431,355,928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23,979,961,599	(200,364,700,753)
이자 수취	21,276,076,828	27,692,389,440
이자 지급	(285,422,726,836)	(782,514,855,762)
배당금의 수취	1,027,636,796	9,599,997
법인세의 납부	(15,385,152,127)	(133,961,580,25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5,347,429,015)	(527,064,183,14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6,729,701,200	94,763,166,396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173,836,508	244,033,153
대여금의 감소	23,940,469,187	37,934,761,916
유형자산의 처분	2,615,395,505	54,998,888,339
무형자산의 처분	0	731,406,051
투자부동산의 처분	0	854,076,937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0	0
단기투자증권의 감소	0	0
사업양수도에 의한 현금유입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22,077,130,215)	(621,827,349,54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54,395,216,473	104,155,996,915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5,000,000,000	6,410,284,877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0	2,000,000,000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24,258,582	7,095,495,328
대여금의 증가	0	0
유형자산의 취득	239,329,631,970	406,588,201,502
무형자산의 취득	93,328,023,190	95,577,370,91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201,261,384)	811,064,576,96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91,885,962,919	2,181,526,256,158
차입금의 증가	357,841,063,250	1,152,738,130,513
사채의 증가	620,430,083,500	496,658,603,591
유상증자	413,614,816,169	0
주식선택권의 행사	0	1,594,320,000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처분	0	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530,535,202,05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72,087,224,303)	(1,370,461,679,197)
차입금의 상환	974,225,224,303	1,137,461,679,197
사채의 상환	480,000,000,000	233,000,000,000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17,862,000,00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18,957,567,185	4,827,508,4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74,656,397,719)	(161,537,332,539)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62,494,292,429	624,031,624,968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87,837,894,710	462,494,292,429

INDEPENDENT AUDITORS' REPORT

외부 감사인 감사보고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술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李在述

2014년 3월 13일

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4년 3월 1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REPORT ON THE ASSESSMEN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IACS)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서 "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 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술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李在述

2014년 3월 13일

CSR FACTS & FIGURES

* 하기 데이터는 본사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CSR 성과표

분류 1	분류 2	2011	2012	2013	비고	
경제						
경제적 성장: 영업실적 (백만 원)	연결기준	매출액	8,463,086	8,158,351	7,736,830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2012년 수치 변화(사업보고서 기준)
		영업이익	679,615	362,417	369,500	
		당기순이익(순손실)	310,810	393,343	(100,950)	
	본사기준	매출액	4,426,917	4,243,619	3,827,352	
		영업이익	369,376	53,691	(19,514)	
		당기순이익(순손실)	313,804	(121,315)	(120,358)	
재무안정성: 재산상태 (백만 원)	연결기준	자산총계	11,703,675	11,544,990	11,481,494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2012년 수치 변화(사업보고서 기준)
		부채총계	9,394,536	8,536,191	7,932,473	
		자본총계	2,309,139	3,008,799	3,549,021	
	본사기준	자산총계	5,844,575	6,763,982	6,905,923	
		부채총계	4,155,946	4,620,963	4,331,045	
		자본총계	1,688,630	2,143,019	2,574,878	
신용등급(회사체)	A	A	A	한국신용평가 제공		
지배구조(%)	이사회 참석률	87	94	80		
기술리더십 (명, 백만 원, %)	R&D 전문 인력	917	1,197	972	본사기준	
	연구개발비용	154,489	181,006	204,082	본사기준	
고객만족(건)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5	4.3	5.3	본사기준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0	0	0	본사기준	
윤리경영 교육(%)	이수율	98.8	99.4	99.3	인당 연 1회	

임직원					
총 직원수(명)	한국 전체	5,414	5,764	5,655	파견직 제외(E-HR 2013년 12월 31일 기준)
	글로벌 전체	14,376	15,206	14,309	
업무 영역별(명)	사무직	3,197	3,570	3,436	
	기술직	2,217	2,194	2,219	
고용 형태별(명, %)	비정규직	172	191	140	계약직(축탁, 기술축탁, 사외이사, 자문, 고문, 외부위촉)
	비정규직 비율	3.2	3.3	2.5	비정규직/한국전체 x100
다양성(명)	장애인	109	121	121	E-HR 기준으로 국가가 정한 장애구분 대상자(1-6급까지)
	국가보훈자	133	145	141	E-HR 기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번호 or 보훈여부 인정자)
	고령자	250	233	278	고령자: 만 55세 이상(한국 전체 인원 기준)
	남자	5,011	5,289	5,176	
	여자	403	475	479	
연도별 이직율(%)	전체(한국)	2.4	1.6	1.3	월 이직자수/월 인원x100의 평균
연령대별 이직율 (%)	20대	0.9	0.6	0.3	연령대별 이직율=연령대별 이직자 수/매월말 인원 평균x100
	30대	1.0	0.8	0.7	
	40대	0.3	0.1	0.2	
	50대 이상	0.2	0.0	0.1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시간)	사무직	182	175	53	
	기술직	26	31	31	
1인당 평균 교육비 (천 원)	사무직	1,389	1,549	3,258	
	기술직	270	289	221	
출산휴가 인원(명)	남자	167	158	171	배우자 출산휴가 근태 사용자 중 근태 시작일이 2013년인 경우
	여자	13	24	38	출산휴가 근태 사용자 중 근태 시작일이 2013년인 경우
출산휴가 후 복귀율(%)	여자	100	100	100	출산휴가 종료일이 2013년인 경우
육아휴직 인원(명)	여자	8	8	30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3년인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율(%)	여자	100	60	99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3년 대상자 사용자-면직자)/육아휴직 종료일이 2013년 대상인 인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84.4	82.5	82.2	생산직 기술사원 대상(전체 인원 2,168명 / 가입 인원 1,783명)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명)		5,105	5,466	4,880	관리직 86%/기술직 88% 참석(해의피견자, 주재원, 출장, 교육, 휴직자 등의 739명 미 이수)

* 이직자 수: 타사취업 및 개인사유로 퇴사인원(정년퇴직, 계약종료 제외)

분류 1	분류 2	2011	2012	2013	비고
사회					
협력사 금융 지원 (개사, 억 원, %, 횟수)	금융지원 협력사 수	141	128	180	
	금융지원 액수(간접지원 제외)	222	457	1,052	
	현금결제 비율	20.1	41.6	41.0	
	대금지급 횟수	월 2회	월 3회	월 3회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개사/건 수)	기술개발 지원 건 수	80	95	55	
	기술보호 지원 건 수	6/6	16/21	19/22	
협력사 교육 지원(과정 수/명)	운영일 수	10/435	74/3,519	57/3,290	외부교육 참석 인원 기준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Man-Day	3,493	3,111	-	2013년 성과집계 기준 변경
	명	-	-	47	
협력사 부품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98	589	592	
형차구 지원(개사, 억 원)		278	235	277	
협력사 EHS 지원(개사)		19	76	61	
협력사 CP 도입 지원(개사)		13	12	10	CP도입 선언 협력사
사회공헌활동 참여 임직원 수(명)*		972	4,275	5,322	
사회공헌 투자금액(억 원, %)		203	149	135	
		0.46	0.35	0.35	사회공헌 투자금액/매출액
임직원 급여관련 모이기 운동 참여 인원(명(%))		4,552(91.8)	4,895(89.7)	5,000(88)	
임직원 급여관련 모이기 운동 연간 모금액(천 원)		33,625	182,327	226,573	

환경						
환경 투자 및 운영 비용(억 원)		151	200	196		
ISO 14001(EMS) 인증(사업장 수)	한국	3	3	3	한국 전 사업장에서 인증	
에너지 사용량(직, 간접 모두 포함) (TJ)	전사, 한국	총합	3,018	2,978	3,121	
		LNG	468	382	380	
		전력	2,339	2,396	2,489	
		경유	180	179	220	
		기타(LPG, 등유 등)	31	21	32	
원료 사용량(직, 간접 모두 포함) (ton, 원단위는 ton/백만 원)	인천	철판	20,452	20,131	21,687	
		철판 원단위	0.005	0.005	0.006	원단위는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고철	52,000	44,500	43,200	
		고철 원단위	0.012	0.010	0.011	원단위는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모래(주물사)	42,000	32,000	34,200	주물사로 사용되는 모래는 전량 재활용되고 있음
		모래 원단위	0.009	0.008	0.009	원단위는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용수 사용량	전사, 한국	용수	813,254	607,251
재사용 및 재활용 된 용수총량(톤)	인천		800(중수도 이용)	800	800	원단위는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온실가스 배출현황(직, 간접 모두 포함) (tonCO ₂ e, 원단위는 tonCO ₂ e/백만 원)	전사, 한국	총합	164,257	153,441	162,080	2013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 174,846
		Scope 1	43,085	37,065	40,757	
		Scope 2	121,180	116,376	120,876	
	인천	원단위	0.037	0.036	0.037	
		총합	111,699	106,373	112,485	
		Scope 1	25,779	22,885	25,338	
	청원	Scope 2	85,920	83,488	87,147	
		총합	19,950	19,198	18,892	
		Scope 1	3,998	3,352	3,062	
		Scope 2	15,950	15,846	15,828	
군산	총합	19,658	16,606	18,701		
	Scope 1	10,746	8,320	10,048		
	Scope 2	8,912	8,286	8,652		

* 사회공헌팀 신설에 따라 내부 기준 확립 및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2011년 Data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 기입

제 3차 검증보고서

INDEPENDENT ASSURANCE REPORT

분류 1	분류 2	분류 2	2011	2012	2013	비고
폐수 배출량(ton)	전사, 한국	-	109,848	114,933	103,461	
	인천	-	89,439	95,420	84,630	Data 집계 방식의 변화로 인해 2012년 Data 일부 수정
	창원	-	11,989	11,843	11,108	
	군산	-	8,420	7,670	7,723	
수질오염물질(mg/L)	인천	BOD	8.2	2.5	6.6	
		COD	11.6	10.2	11.2	법적기준치: 130mg/L, 사내기준치: 52mg/L
		부유물질량	8.3	2.0	4.5	법적기준치: 120mg/L, 사내기준치: 48mg/L
	창원	BOD	-	-	-	법적기준치: 130mg/L, 사내기준치: 52mg/L
		COD	7.5	5.6	5.7	법적기준치: 130mg/L, 사내기준치: 52mg/L
		부유물질량	2.0	2	0.5	법적기준치: 130mg/L, 사내기준치: 52mg/L
	군산	BOD	147	90	113	법적기준치: 400ppm, 사내기준치: 160ppm
		COD	121	110	112	법적기준치: 400ppm, 사내기준치: 160ppm
		부유물질량	10.9	18	10	법적기준치: 200ppm, 사내기준치: 80ppm
대기오염물질 (ppm, 먼지는 mg/m³)	인천	NOx	3.8	2.5	0.8	법적 기준치 200ppm, 사내 기준치 80ppm
		SOx	4.2	0	6.6	법적 기준치 400ppm, 사내 기준치 160ppm
		VOCs(연속식/비연속식)	13.8	11.7/26.0	6.4/14.1	법적 기준치 40/200ppm, 사내 기준치 32/160ppm
		먼지(전기료/전기료 외)	3.2	2.6/2.6	4.2/3.5	법적 기준치 20/50mg/m³, 사내 기준치 8/20mg/m³
	창원 (Nox, Sox 없음)	VOCs	18	25	18	법적기준치: 200ppm, 사내기준치: 160ppm
		먼지	3	5	4	법적기준치: 50mg/m³, 사내기준치: 20mg/m³
	군산	NOx	0.3	0.14	0.13	법적기준치: 200ppm, 사내기준치: 80ppm
		SOx	0.9	1.15	1.58	법적기준치: 400ppm, 사내기준치: 160ppm
		VOCs	2.4	2.73	4.45	법적기준치: 40ppm, 사내기준치: 32ppm
		먼지	2.7	2.43	1.76	법적기준치: 50mg/m³, 사내기준치: 20mg/m³
오존층 파괴물질	인천	CFC, HCFC, CH,Br, R-22	-	-	-	오존층 파괴물질 발생량 없음
	창원	CFC, HCFC, CH,Br, R-22	-	-	-	
	군산	CFC, HCFC, CH,Br, R-22	-	-	-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률 (ton, 재활용률은 %)	전사, 한국	폐기물 총량	63,431	54,932	52,911	
		재활용량	59,907	-	47,452	
		재활용률	94.4	87	90	
	인천	일반폐기물량	57,681	49,872	48,014	
		지정폐기물량	3,340	2,637	2,801	
		재활용률	96	88	91	
	창원	일반폐기물량	932	1,077	753	
		지정폐기물량	618	496	478	
		재활용률	57	56	56	
	군산	일반폐기물량	668	669	649	
		지정폐기물량	192	181	216	
		재활용률	59	71	60	
산업재해율	전사		0.44	0.28	0.39	산재요양승인 기준

수신 : 두산인프라코어 경영진

본 검증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회사")으로부터 2013 통합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정보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본 검증인의 책임은 보고서에 대하여 제한적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제약 사항

본 검증업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토는 제외되었으며, 2012년 이전의 환경 및 사회 성과 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 검증인은 경제 성과 데이터를 회사의 감사 받은 201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결론

본 검증인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회사는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CSR 추진 방향 설정 및 실행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배제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회사가 CSR 실행에 있어 포괄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회사는 CSR 성과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균형있게 전달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서 제외된 회사의 CSR 성과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회사가 보고서에 포함될 중요 이슈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회사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대응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

보고서에 포함된 경제, 사회, 환경 성과정보가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회사의 경제, 사회, 환경 성과 정보로부터 제외된 주요 보고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상기와 관련된 성과 정보가 회사의 보고 체계 상에서 적절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행 업무

본 검증인은 ISAE 3000¹과 AA1000AS(2008)²에서 정의된 TYPE 2 검증 요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결론 도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하였습니다.

- 회사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중요 이슈 선정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 보고기간 중 회사의 CSR 이슈가 언급된 미디어 자료 조사
-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최근 CSR 보고 이슈 분석
- 보고기간에 해당되는 CSR 활동 및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관련 담당자 인터뷰
- 회사의 CSR 성과에 대한 데이터 및 주장에 대한 근거 문서, 인터넷 원천에 대한 검토
- 주요 CSR 성과 데이터에 대한 생성 및 취합, 보고 프로세스의 검토
- 경제 성과 데이터가 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검증 수준

본 검증인은 ISAE 3000에서 기술하고 있는 제한적 확인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한적 확인의 업무는 합리적 확인을 제공하는 검증 업무와 비교하여 검증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ISAE 3000의 제한적 검증은 AA1000AS (2008)에서 정의된 검증의 중간 수준(MODERATE LEVEL)과 일치합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발행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Revised):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2. Accountability가 발행한 두 번째 AA1000 Assurance Standard

A MEMBER FIRM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보고서 내 의견 및 주장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제시된 회사의 경제, 사회, 환경 성과와 관련된 주요 주장에 대한 정보 및 설명에서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기 사항

다음은 본 검증인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검증 과정에서 향후 향상된 회사의 CSR 성과 보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회사의 CSR 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가 글로벌 CSR 리더기업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과 CSR 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CSR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 및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다 완전한 성과데이터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의 환경 및 사회 성과 데이터의 생성, 취합, 보고 수준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독립성

본 검증인은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 윤리헌장을 준수하였습니다.

수행업무팀

본 검증 업무팀은 CSR 분야에서 전문 역량과 다년간 검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 년 5 월
EY 한영
대표이사 권승화
權 勝 和

GLOBAL NETWORK

● 생산법인 23
● 지사/사무소 51
● R&D 센터 11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2013 두산인프라코어 통합보고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삼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FSC 인증 인쇄소에서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한국 내 사업장 현황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02-3398-8114
인천공장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032-211-1114
창원 남산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40	055-280-4114
창원 대원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삼동로 101	055-270-0497
창원 성주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44번길 19	055-280-4114
군산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85	063-447-3043
인산부품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48	031-400-2114

발행팀 두산인프라코어 기획조정실 CSR팀
E-mail: infracore.csr@doosan.com

기획·디자인 IM creative Tel: 02-303-4266